

오너기업 2·3세 사내이사 속속 등판

정의선, 현대차 4개 계열사 겸임
김석환 대표 등 10여명 잇따라 선임
책임경영 의지...투명성엔 우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의 막이 오르자마자 올해도 오너 일가 2·3세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잇달아 상정되고 있다. 책임경영 차원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한편에선 승계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아자동차는 1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정의선 현대차 총괄수석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정 총괄수석부회장은 2005~2009년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이사회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9년간 비상근인 기타비상무이사 역할만 해왔다. 이번 사내이사 선임으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4개 핵심 계열사의 사내이사들

겸임하게 됐다.

한세에스24홀딩스도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함께 김석환 에스24 대표,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 김지원 한세엠케이 이사 등 2세들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될 경우 그룹 내 상장사에서 김익환 대표는 3곳에, 김석환 대표와 김지원 이사는 각각 2곳에서 사내이사를 겸하게 된다.

상법상 사내이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의결권 자문사들은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를 2개 초과해 겸직할 경우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정 총괄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좋은기업지배연구소(CGCG)는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충실의무 저해 가능성, 회사 사업 기회 유용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14면에 계속 오예린 기자 yerin2837@



“에어가전 기술 신기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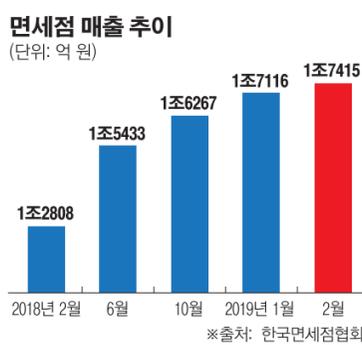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용섭(오른쪽) 광주시장이 18일 광주 북구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서 열린 ‘에어가전 기업협의체 입주행사’에서 에어가전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오너 일가 사내이사 신규 선임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회사	주주총회 날짜	신규 사내이사 후보	오너와의 관계
기아자동차	3월 15일	정의선 현대차 총괄수석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
한세에스24홀딩스	3월 28일	김석환 에스24 대표이사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이사 김지원 한세엠케이 이사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 장남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 차남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 장녀
삼광글라스	3월 27일	이원준 삼광글라스 전무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 차남
현대백화점	3월 22일	정교선 현대백화점 그룹 부회장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차남
일동홀딩스	3월 22일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 장남
유유제약	3월 28일	유원상 유유제약 부사장	유승필 유유제약 회장 장남
한국제지	3월 22일	단우영 해성디에스 사장 단우준 해성디에스 부사장	단재완 한국제지 회장 장남 단재완 한국제지 회장 차남
깨끗한나라	3월 22일	최현수 깨끗한나라 부사장	최병민 깨끗한나라 회장 장녀

중 관광객의 귀환...면세점 매출 ‘고공행진’

1월 이어 2월도 ‘사상 최대’
위안화 강세·항공편 증가 덕분
중정부 보따리상 규제 영향 없어



년 3월 이후 최대치이며 2016년 1~2월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객단가가 높아진 점도 면세점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국내 면세점 매출의 80%는 외국인이 차지하는데 외국인 객단가는 1월 93만 원에서 2월 106만 원으로 14% 높아졌다. 지난해 2월(76만 원)과 비교하면 40%로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고, 한중 항공회담으로 양국 간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사상거래법 시행뿐 아니라 사드 보복 조치처럼 중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물변하는 등 여전히 중국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정부가 시내면세점을 확대할 계획인 데다 5월 입국장 면세점까지 들어서면 올해도 업계 전체 매출이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선 기자 only@

중국 정부의 ‘다이공’(代工·보따리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국내 면세점 매출이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18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면세점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1조 2808억 원)보다 36% 늘어난 1조 741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월별 매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월별 매출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1조 7000억 원대를 넘어선 후 올 1월 1조 711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월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2월은 다른 달과 달리 영업일수가 적음에도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해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갤노트10’ 이어폰 단자 사라진다

무선 이어폰 이용자 급증 영향 커
배터리용량 확대·성능개선 도움

삼성전자가 10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노트10’의 이어폰 단자를 제거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10을 시작으로 향후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의 이어폰 단자를 없앨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한 중소 협력사는 베트남 공장에서 USB-C타입(충전단자)용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초정밀 소형 금속 기술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형까지 완료된 이번 기술은 갤럭시 노트10에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품을 개발한 업체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힌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회사로 전해졌다.

USB-C는 스마트폰 하단 가운데에 있는 충전 포트다. 3.5mm 이어폰은 USB-C 포트에 바로 꽂을 수 없다. 3.5mm 이어폰을 쓰려면 별도의 변환 잭을 사용해야 한다. 즉, 무선 이어폰이나 USB-C 단자에 별도 잭을 꽂아 유선으로 음악 등을 들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모델에서 이어폰 잭을 없애려는 건 스마트폰 설계상 이점과 무선 이어폰 보급 등을 종합해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폰 디자인은 경박단소(輕薄短小)로 바뀌는 추세다. 성능은 발전하면서 전체 외형이 두꺼워지거나 커져서는 안 된다. 얇고 가벼워야 한다. 결국 최소한의 부품으로 최대 성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어폰 단자를 없애면 다른 부품을 배치할 공간이 확보된다. 새로 생긴 공간으로 배터리 용량을 늘리거나 신규 부품을 장착, 성능을 개선하는 게 가능하다.

최근 무선 이어폰 사용자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점도 단자 제거의 배경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무선 이어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약 4600만 대의 무선 이어폰이 판매됐다. 내년에는 약 3배 규모인 1억 2900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무선 이어폰 사용층이 확대될수록 이어폰 단자의 효용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성동조선 파산 기로에

회생계획안 5월로 또 연기
내달 재입찰...해법 못찾아
6월 넘기면 파산절차 수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또다시 연기됐다. 스톱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 중인 매각 작업은 내달 공개입찰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파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창원 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최근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이달 22일에서 5

월 22일로 두 달 연장했다.

현재는 스톱킹호스 방식으로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스톱킹호스는 수익계약으로 사전에 인수 예정자를 확보한 뒤 공개 경쟁입찰이 무산되면 인수 예정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한 방식이다. 법원 관계자는 “인수 예정자는 2차 공개매각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곳의 투자자 중 1곳”이라며 “4월 재입찰을 진행해 보다 나은 조건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회생계획 제출기한을 1월 23일에서 3

월 22일로 연기한 바 있다. 또 입찰에 참여한 법인과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FI) 등 3곳의 투자자에게 인수제안서(LOI) 보안을 수차례 요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법정관리인을 불러 투자자들이 제출한 LOI를 검토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에는 인수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고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차 매각에서는 외국계 펀드 컨소시엄이 유력했지만, 이정보 증금을 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6월로 넘어가면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인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공개 입찰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김영진 회장, 투자본색...한독 '토탈 헬스케어' 꿈 영근다



**연초 바이오 기업 레졸루트 지분 확보... 美 진출 발판 마련
신약 후보물질 발굴 트리거 테라퓨틱스에 57억 지분 투자도
항암제부터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보**

김영진(사진) 한독 회장이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를 통해 한독의 바이오 사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과감한 선택과 투자가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기업' 비전 실현을 앞당길지 업계의 시선을 끈다.

한독은 미국 바이오벤처 트리거 테라퓨틱스에 500만 달러(약 57억 원)의 지분 투자를 통해 약 10% 규모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트리거 테라퓨틱스는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임상시험과 개발에만 집중하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기업이다. 현재 국내 바이오기업 에이비엘바이오에서 이중항체 기반 신약 과제 4건을 기술

이전해 개발하고 있다. 그중 신생혈관 억제 항암항체 'ABL001/TR009'는 국내 임상 1a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지분 투자로 한독은 에이비엘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권리를 손에 넣었다. 김 회장은 "트리거 테라퓨틱스는 빠른 속도로 임상과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성장성 높은 기업"이라며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에이비엘바이오와 한독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바이오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제넥신과 함

계 미국 바이오기업 레졸루트에 2500만 달러(약 280억 원)를 투자, 레졸루트의 지분 54%를 확보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레졸루트는 대상성 희귀질환 분야의 혁신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회사로 초희귀 질환인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의 미국과 유럽 임상 2b상을 앞두고 있다. 특히 성장호르몬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한독과 제넥신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지속형 성장호르몬 'GX-H9'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한독은 그간 신약 개발보다 수입 전문의약품 공급에 주력했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역량이 주목받지 못했다.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은 2012년 사노피와 합작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서기에 나선 때부터다. 김 회장은 한독을 바이오기업 제넥신의 최대 주주로 올리며 R&D 인프라를 강화했다. GX-H9 외에도 오픈 이노베

이션으로 △CMG제약 및 항암신약개발 사업단과 혁신적 표적항암제 'Pan-TRK 억제제' △지분 투자한 바이오칩 전문기업 엔비포스텍과 나노콘 기술 기반의 '래피드 스크리닝 테스트 키트(Rapid Screening Test Kit)' △자회사 한독칼로스메디칼과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을 치료하는 의료기기 '디넥스' 등을 개발 중이다.

창업주 고 김신권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 회장은 항암제에서 성장호르몬, 의료기기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치며 토탈 헬스케어 기업 실현을 가속하고 있다. 성장 동력 확보와 동시에 영업실적 턱어라운드에도 성공했다. 각 사업부의 고른 호조로 지난해 영업이익 221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으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88% 증가한 4467억 원을 달성했다.

유혜은 기자 euna@

美 S&P500 기업 CEO 평균 연봉 141억 (1240만 달러)

**전년보다 6.4% 인상... 매월 100만 달러 받아
디즈니의 로버트 아이거 연봉 6600만 달러로 최고**

지난해 미국의 경기 호조에 따른 임금 인상 붐을 타고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두둑한 연봉을 챙겼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에 따르면 S&P500 기업 CEO 132명이 작년에 받은 연봉 중간값은 1240만 달러(약 141억 원)로 2017년보다 6.4% 인상됐다. 매월 약 100만 달러씩 받은 셈이다.

WSJ는 S&P500 기업 중 15일까지 CEO 총보수를 공개한 132개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수치를 얻었다. 향후 다른 기업의 발표에 따라선 결

과가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평균치가 유지된다면 미국 대기업 CEO 연봉은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임원 보수 전문 컨설팅 업체 페리언트 어드바이저스의 로빈 페라곤 설립자는 "경제가 견조한데다 시장도 호조를 보였고, 기업 실적도 좋았다"며 "CEO들은 지금이 자신들의 보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들은 실적이 부진하면 보수를 깎아야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도 CEO만큼은 아니지만 오르고 있다. 2월 비관리직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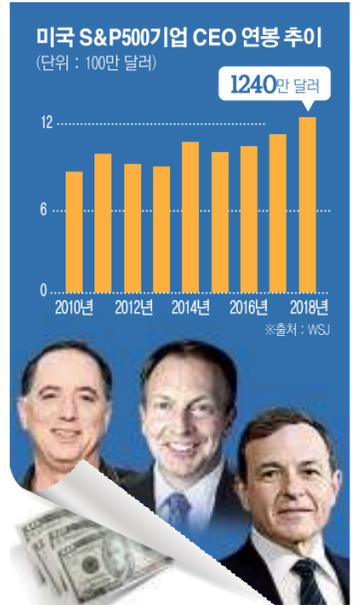
다만 CEO들의 인상폭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WSJ는 132개 기업의 주가와 배당금을 반영한 총주주이익률은 2.9%로, CEO 연봉 인상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기업 중 3분의 1은 총주주이익률이 마이너스(-)10% 이거나 그보다 더 나빴다. 이는 2017년 이들 기업의 총주주이익률이 21%를 기록했던 것과 대조된다.

CEO 중 최고 연봉자는 6600만 달러를 받은 월트디즈니의 로버트 아이거였다. 그의 연봉은 2017년보다 80%나 뛰었다. 그다음은 금융서비스 업체 제프리

스파이낸셜의 리처드 핸들러 CEO였다. 그는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470만 달러를 받았다. 3위는 의료장비업체 홀로직의 스티븐 맥밀런으로, 그는 2017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4200만 달러를 챙겼다.

그러나 모든 CEO의 연봉이 오른 건 아니다. 47명은 오히려 연봉이 삭감됐고, 그중 22명은 삭감폭이 10% 이상이였다.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의 흑 탄 CEO는 2017년 스톡옵션 실행분을 포함해 연봉이 1억30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500만 달러로 급감했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1월 4일 마감한 회계연도에 총주주이익률이 -12.9%를 기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왼쪽부터 리처드 핸들러 제프리스파이낸셜 CEO·스티븐 맥밀런 홀로직 CEO·로버트 아이거 월트디즈니 CEO.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마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저가株 단타’ 실패공식 알면서도 안 변하는 투자패턴

5년 주식투자 성적표 보니...

기관 21%·외국인 16% 수익 날 때
제조업 담은 개인, 평균 -8% 손실
2015년 한 해 빼곤 모두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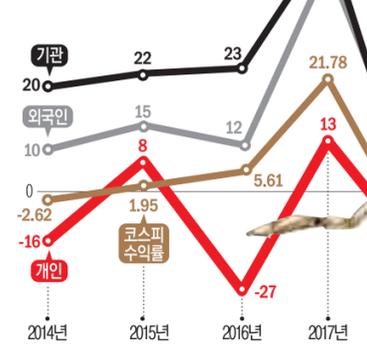
주식시장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개미였다. 개인투자자는 주식투자에서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비교적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투데이가 지난 5년간(2014~2018년) 투자자별 주식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개인은 평균 -8%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1%, 16%의 수익을 거뒀다.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20종목을 산출

해 5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다. 단순 계산하면 개인, 기관, 외국인이 5년 전에 100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면 개인의 잔고는 92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21억 원, 116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개인은 2015년(8%)과 2017년(13%)을 제외하고 2014년(-16%), 2016년(-27%), 2018년(-18%)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모두 순수익을 거

뒀다. 투자 주체별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에 대한 투자금액은 비슷했다. 개인은 매년 평균 8조9618억 원,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조5134억 원, 11조5968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장바구니에 담은 종목은 상이했다. 개인은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제조업을, 기관과 외국인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정보통신)기업을 선호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손실을 기록한 해는 이중 무역분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을 겪었던 지난해가 유일하다. 각각 -11%, -1% 손실을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만도(-91%)와 현대미포조선(-30%), 휠라코리아(-36%), LG(-23%) 등이 무역분쟁 직격탄을 맞으며 추락한 탓이다. 개인 역시 -18% 손해를 봤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년 높은 수익을 거뒀다.

투자자별 주식수익률 추이 (단위: %)
※ 출처: 한국거래소



2018년 투자자별 주요 순매수 상위 종목 (2018년 1월 2일~12월 28일 기준)
※ 출처: 한국거래소

종목	개인 증감률	기관 증감률	외국인 증감률
현대로템	48%	셀트리온	-2%
LG전자	-43%	삼성SDI	3%
한국항공우주	-34%	두산밥캣	-13%
현대건설	47%	현대중공업	20%
POSCO	-28%	CJ대한통운	16%
		SK하이닉스	-21%
		엔씨소프트	4%
		삼성에스디에스	1%
		LG	-23%
		GS건설	53%

“내가 팔면 왜 오르나”... 희비 가른 선호업종

개인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 살 때 외인·기관은 네이버·카카오 담았다

투자 주체별로 선호하는 업종도 달랐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개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진 업종은 매년 하락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인 업종은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2014년 이후 5년간 개인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등을 사들였다. 코스피에서 운수업종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네이버와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종에 주로 투자했다. 그 기간 해당 업종들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운수업종은 -46.66%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종은 2.52% 상승하면서 투자자들 간 희비가 극명히 갈렸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 개인과 기관 간 겹치는 종목은 거의 없었다. 개인이 5년간 꾸준히 매수한 상위 종목은 LG디스플레이,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건설, 한국항공우주, 대우조선해양 등이다. 기관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삼성에스디에스, 엔씨소프트, 포스코 등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에스디에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에 대한 매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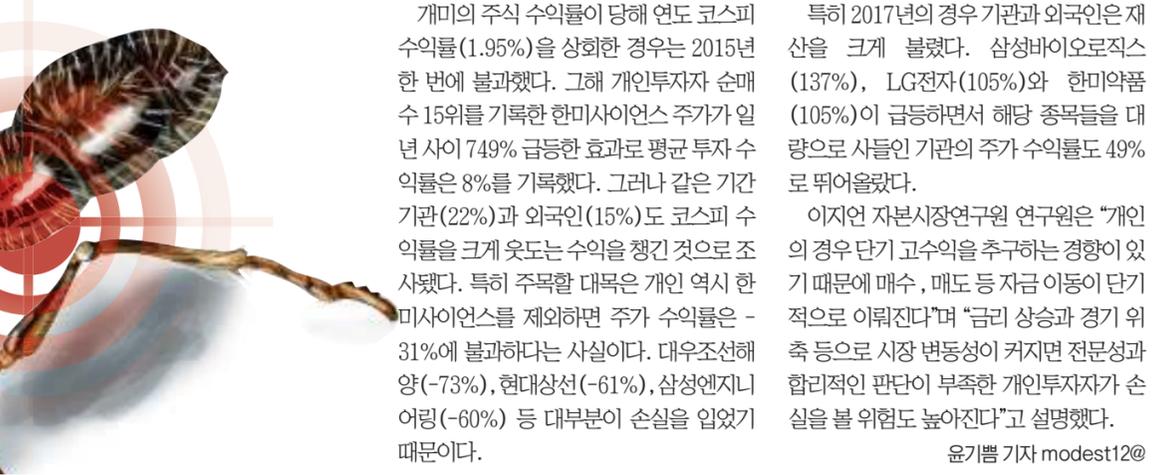
김근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올해 초 한 논문을 통해 “14년간 투자자별 주식거래 형태를 연구한 결과 개인투자자가 매수할 때 외국인은 매도하는 등 서로

정반대의 거래 패턴을 보였다”며 “개인이 매도하는 종목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대부분 높았고 매수하는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5년간 개인이 투자한 상위 종목들은 손실을 거듭했다. 순매수 상위 20종목 중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은 2014년 팬오션(242%)과 2015년 한미사이언스(749%), 2017년 STX중공업(294%)과 삼성바이오로직스(137%)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반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상선 등 대부분 대규모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했다.

반대로 기관은 2015년 아모레G(-86%)와 현대제철(-37%), 2016년 한미사이언스(-53%), 2018년만도(-91%)와 현대미포조선(-30%) 등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익을 거뒀다. 외국인 역시 2014년 롯데쇼핑(-33%), 2015년 아모레퍼시픽(-82%)과 현대글로비스(-37%), 2017년 현대중공업(-32%), 2018년 네이버(-86%)와 휠라코리아(-36%) 등 소수 종목에서 손해를 봤다. 반면 그 외 종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고대봉 하이투자증권 센터장은 “사실 투자 형태가 펀드, ETF 등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별 단순 비교가 어렵다”며 “주식 수익률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당신의 봄

대한민국 당뇨인의 천만다행을 위해

천만다행

흔치않은 힘들고 어려운 당뇨관리 내 손안의 든든한 당뇨 주치의 마이헬스노트가 있으니까, 천만다행!

당뇨병 고객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마이헬스노트 앱

자가관리 서비스 | 혈당기록, 자동 칼로리 계산, 걸음 수 측정기 편리
건강 정보 서비스 | 영양, 수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정보 제공

전문의 코칭서비스 | 경북삼성병원 당뇨전문센터 전문을 통한 맞춤상담
무료 이용 서비스 | 삼성화재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당뇨병 보유 고객이면 무료 이용 가능

*마이헬스노트는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마이헬스노트 앱을 검색하면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를 참고해주세요.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

음주운항 엄중 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나온다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바다 위 '윤창호법'이 나왔다. 최근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읍) 의원은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

박재호 의원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혈중알코올농도·위반횟수 따라 처벌 강화... 기존 일률 적용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항 2회 이상엔 7년 이하 징역

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리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에 들이받혀 찢어진 부산 광안대교 하판. 연합뉴스

는 취소만 하도록 돼 있다. 특히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광안대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 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 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엔 김병관·전재수·이기구·김해영·송기현·이용득·이훈·최인호·위성근·김현권·안호영·유승희·황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 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 정지 1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선박직원법은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



'첫 기숙사형 청년주택' 찾은 유은혜-김현미 유은혜(왼쪽 첫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왼쪽 세 번째) 국토부 장관이 18일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개관식 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첫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기숙사비는 1인당 월평균 23만 원 수준이며, 보증금은 20만 원이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대학원생 145명이 입주했다. 연합뉴스

광주에 '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LG전자·광주시·광주TP MOU
정부 '육성 프로젝트' 탄력 전망

광주광역시에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LG전자와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는 18일 광주 북구 테크노파크에서 '공기산업 육성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기산업은 공기정정기와 건조기, 송풍기 등 공기를 이용한 가전 산업을 말한다.

세 기관은 MOU에서 광주 지역 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공동 생산 플랫폼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LG전자는 그간 가전 분야 R&D, 공기정정기 보급 사업 등에

서 협력해 왔다.

이번 MOU로 정부가 광주에서 추진 중인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대 지역활력 제고 프로젝트' 중 하나로 광주 공기산업 육성을 내놨다. 선도 기업과 연구소, 실증 인프라를 집적한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이다. 여기에 산업부와 광주시는 판로 확보를 위해 학교 등 지역 공공기관에 에어가전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운모 산업부 장관은 "협력 MOU가 광주 공기산업 생태계 조성의 주춧돌이 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페루·코스타리카 인프라 수주 민관 힘 합쳤다

합동지원단 '팀코리아' 구성... 페루 신공항 등 성과 기대

페루·코스타리카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민관이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해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페루와 코스타리카에 김용석 공항공정재관과 이근기 해외건설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수주지원단에는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철도시설공단,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했으며 27일까지 현지에서 활동한다.

수주지원단은 페루 교통통신부가 정부간 계약으로 추진 중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 및 운영 사업(총 5억 달러, 6월 입찰결과 발표), 메트로 3·4호선 건설 사업(약 100억 달러, 4분기 입찰)의 수주를 위해

대통령(잠정), 교통통신부 장관, 공항관계자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코스타리카에서는 향후 입찰 예정인 산호세 광역철도 건설사업(약 16억 달러, 2020년 입찰), 리몬 화물철도 현대화 사업(타당성 조사 75만 달러, 3월 입찰·본사업 약 4억5000만 달러, 2020년 하반기 입찰)의 수주를 위해 대통령 영부인(잠정) 및 정부 관계자와 면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남미 시장은 앞으로 건설·인프라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페루와 코스타리카에서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경쟁력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내부 불협화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놓고 내부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두 기관의 기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광해공단 노조는 13일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번 두 통합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외 자원 사업 실패로 광물공사의 부실이 심각해지자 정부·여당은 두 기관을 한국광업공단으로 합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노조는 통합으로 광해 방지, 폐광 지역 지원 등 광해공단이 해오던 기존 업무까지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해공단 사측의 입장도 비슷하다. 광

해공단 관계자는 "볼레오 광산 같은 부실자산은 이지만 1500억 원씩 발생할 텐데 그렇게 되면 기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

"기관 통합으로 기존 업무 위축 우려" 광해공단 노조, 국회에 성명서 제출 사측 "부실자산 이자 부담 커" 난감 광물공사도 "금속비축사업 유지"

회입법조사처는 이달 내용은 보고서에서 2021년까지 광물공사의 잔존부채가 2조31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광물공사도 기존 사업의 존치를 원한

다. 통합법엔 해외 직접 사업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희유금속 비축 사업을 두고서도 조달청과 줄다리기가 중이다. 한 자원업계 관계자는 "아직 민간 자원 기업이 영세한 측면이 있다. 아직까지는 기술력을 감안해 공기업과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원 업계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자원공사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돈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원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접수

만 18~34세 미취업자 대상... 6개월간 월 50만원씩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은 25일부터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신청을 25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만 18~34세 미취업자로, 기준중위소득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취업 준비 비용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생애 1회만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의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유휴·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고용부는 청년 8만 명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158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선정방식 '최저입찰→최고점수' 낙찰 전환

조달청의 건설기술용역 선정 방식이 최저입찰 낙찰에서 최고점수 낙찰로 전환된다.

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 낙찰제 시행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해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적격심사낙찰제에선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었다.

적용 대상은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이다. 사업수행능력과 기술제안서 등 기술능력평가에서 80점, 입찰가격평가에서 20점이 반영된다.

이상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가격 위주 낙찰자 선정 방식을 탈피한 조치"라며 "내년부터는 건설기술인력 고용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 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국제노동기구>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 밥값 못 하는 경사노위

고개 드는 대타협기구 무용론

사회적 대화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 의결 불발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 논의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에 시간만 낭비하고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다. 대타협기구 무용론은 그래서 나온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달 내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논의된 결과를 국회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비준 전에 국내법을 손질하지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이 논의를 노사관계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익위원안을 내렸지만 노사 모두 반발했다. 지난달 25일 실무협상을 진행한 후 3주째 관련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과 내용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가 크다. 노사관계위 소속 공익위원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불참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달 안에 합의

노사 실무협상 3주째 제자리

"탄력근로제 이어 또 시간 낭비 합의 못하고 국회에 책임 떠넘겨"

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사노위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탄력근로제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는 데 실패했다.

탄력근로제 합의 불발에 이어 ILO 핵심협약비준이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간다면 경사노위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사노위의 구조로는 합의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력근로제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이해관계자의 대화에 앞서 우리사회 노동의 프레임이 어떻게 짤 것인가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안에 대해 먼저 틀을 만들어 놓고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노사 양측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정부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김해신공항, 예정대로 추진할 것"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제출 "철도 통합, 공공성 측면서 검토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



공성 강화 측면을 두루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산업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국토부가 작년 6월부터 추진했던 연구용역은 작년 말 발생한 철도사고로 인해 올해 1월 일시 중지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고, 건설과 운영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이원화된 철도 상하부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왔다.

그는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 정부 안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외국 전문

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상황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심각한 여야 원내대표 홍영표(왼쪽) 운영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뉴스스

靑 경제보좌관에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060 댓글' 등 설화로 사임한 김현철 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 후임으로 주형철(사진)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주 신임 보좌관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할 가능성이 높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주 신임 보좌관은 IT분야 전문가로 20여년간 민간기업 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이 강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투자 지원, 생태계 조성 등 공공정책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는 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다져진 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지속 가능한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등 정부의 혁신성장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보좌관은 대전 대신고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SK그룹에 입사해 SK텔레콤 U-Biz 본부장,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를 지냈고 이어 NHN NEXT 교수,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버닝썬·김학의 진상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 檢·警에 특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

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들 사건은 사건의 실제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한 수사를 해 진상을 밝혀라"라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KB 금융그룹 | 국민 금융 파트너

아이의 미래, 더 밝아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의 희망을 지켜주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자녀보험이 든든해야
아이들의 내일도 더 밝아진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소중한 우리 아이 미래까지 든든하게
KB The드림아이종은자녀보험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126호 (2019.01.0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 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B 손해보험

中, 보잉사고에 발빠른 보이콧... '항공대국' 입김 과시

운항중단 선언에 글로벌 시장도 동조 5년內 美 제치고 '항공왕좌' 오를 듯



10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 추락사고로 탑승객 157명 전원이 사망하자 다음날 중국은 해당 기종 운항을 금지했다. AP뉴시스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8 여객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항공대국 중국의 영향력이 새삼 부각됐다.

중국은 10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8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다음 날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시켰다. 이후 아시아, 유럽, 남미 등 많은 나라들이 문제의 항공기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중국의 발빠른 결단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력이 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이 운항 중단을 발표했을 당시,

미·중 무역 협상과 병행해 베이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되고 있었던 만큼 중국 지도부는 자국민에게 안전에 대한 의지를 내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항공대국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중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1일 자국

13개 항공사에 보잉 737맥스8의 운항을 금지시켰다.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보잉 737맥스8은 최근 6개월 동안 두 번의 대형 사고를 냈다. 두 사고 사이의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운항 중지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작년 10월 바다로 추락해 189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도 보잉 737맥스8 기종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다소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데다 보잉의 나라인 미국 연방항공청(FAA)보다 먼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항공사 안전평가 전문 사이트에 어라인 레이팅스의 제프리 토머스 편집장은 "중국이 국제 권력을 벗어나 사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운항 중단을 결정한 것은 항공업계의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항공시장에 등극할 전망이다. 중국은 항공산업의 성장세도 빠를 뿐 아니라 중국 항공사는 여객 수와 노선 수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런 성장을 배경으

로 중국은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조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손에 넣게 됐다.

실제로 중국의 보이콧 선언 이후 보잉 737맥스8의 운항 규모는 25% 감소했다. 보잉은 최근 5년간 제트기 1000대를 중국에 공급했다. 이전에 1000대를 공급하는데 40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증가세다.

보잉은 향후 20년 동안 세계 제트기 수요의 25%에 해당하는 7690대, 총 1조 1900억 달러(약 130조 원)어치를 중국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 중 5730대가 보잉 737맥스같은 단일 통로기에 해당한다. 물론 중국 항공당국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에 보잉의 '밥줄'은 중국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김영정 기자 0jung2@



교통지옥 홍콩서 지하철 탈선 사고

홍콩 철도회사 MTR가 18일(현지시간) 새벽 홍콩 취안완 라인의 새로운 신호체계를 시험하던 도중 탈선해 다른 열차를 들이받아 심하게 파손됐다. 충돌한 지하철 차량에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지만 기관사들이 매연을 흡입하거나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철도당국은 수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발표. 당분간 홍콩의 교통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AP뉴시스

'경영난' 獨 도이체뱅크·코메르츠뱅크 합병협상 '유로존 2위 은행' 탄생 초읽기

독일 양대 은행인 도이체뱅크와 코메르츠뱅크가 합병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두 은행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합병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밝혔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이들 은행이 경영난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해 수년 전부터 합병 압박을 받아온 끝에 결국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풀이했다.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협상이 즉각 시작될 것"이라며 "두 은행은 구체적인 의를 위해 여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주 상세한 실사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장기간의 협상을 거쳐 거래가 성사되면 프랑스 BNP파리바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2위 은행이 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영국 HSBC홀딩스, BNP파리바에 이어 3위 규모가 된다. 두 은행의 자산은 총 1조9000억 유로(약 2444조 원)에 이르며 직원 수는 14만 명이 넘는다.

WSJ는 두 은행의 결합은 마지못해 하는 결혼과 마찬가지로 비유했다. 두 은행 노조 모두 합병에 격렬하게 반대해온 데다 도이체뱅크 대주주 6명 중 5명이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주주인 독일 정부가 두 은행의 '각자 도생(各自圖生)'에 의문을 품으며 압박을 가하자 결국 손을 들었다. 독일 정부는 코메르츠뱅크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

도이체뱅크는 2017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지만 경쟁사들에 비해 열등한 수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였다. 코메르츠뱅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받아들인 정부 출자가 남아 있어 경영 기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DZ뱅크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합병으로 연간 비용이 23억 유로 줄어든 것"이라면서도 "고객들이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어 연매출 15억 유로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할리우드로 간 '애플' "IT'S SHOW TIME"

애플의 '쇼타임'이 시작된다.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1000석 규모의 스티브잡스극장에서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들과 프로듀서를 상대로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의 초점은 아이폰이 아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HBO가 주름잡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애플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자리다. 그래서 행사명도 'It's show time'이다. 사업의 핵심을 실리콘밸리에서 할리우드로 옮겨간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에서 애플은 10개 이상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에는 리즈 위더스푼, 제니퍼 애니스톤, 브리 라슨, 제이슨 모모아, 옥타비아 스펜서, J.J. 에이브럼스, M. 나이트 시말란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까지 쟁쟁한 스타들이 참여했다.

애플이 할리우드에 뛰어든 이유는

25일 배우·PD들과 쇼케이스 엔터테이너 변신 콘텐츠 제작 넷플릭스·아마존과 진검승부

하나다. 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애플이었지만 최근 수익은 예전 같지 않다. 더 이상 아이폰이란 '하드웨어'만 고집할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돈이 될 만한 콘텐츠가 필요해졌다.

애플의 엔터테인먼트 팀은 역사적으로 영화 제작의 중심지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 쿨버시티에 있다. 이 팀은 애플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을 이끌어온 수석 부사장 에디 큐가 이끌고 있다. 여기에 소니에서 TV 부문 임원을 지낸 제이미 얼리히트와 짝 반 엠버그가 호흡을 맞춘다.

하지만 애플이 할리우드에서 넘어야 할 산은 녹록지 않다.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은 이미 넷플릭스, 아마존, 훌루 등 강자들이 지배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새로운 콘텐츠에 최소 80억 달러를 지출했다. 아마존과 월트디즈니, 워너 미디어도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으로 2018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약 500편의 TV 프로그램이 시장에 나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플은 다섯 개 시리즈를 완성했고 2020년까지 제작 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애플의 새로운 도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애플이 고수해온 비밀스러운 영업 스타일이 쇼 비즈니스 세계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쇼타임'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애플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25일에 있을 애플의 '쇼타임'이 할리우드의 우려를 얼마나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정 기자 0jung2@

'67만 팔로어' 에어아시아 CEO "테러 생중계 충격... 폐북 탈퇴"

67만 명의 페이스북 팔로어를 거느린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 최고경영자(CEO)가 페이스북 탈퇴를 선언했다. 15일(현지시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이 페이스북으로 범행장면을 생중계한 데 대한 충격 때문이다.

페르난데스 CEO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페이스북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 넘쳐나는 증오 메시지의 양이 때로는 좋은 것을 능가한다"며 "페이스북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도 그동안 가짜 뉴스의 희생자였다"며 "17분간 학살과 증오를 생중계하다니! 페이스북은 재무적인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오후 기준 그의 페이스북은 폐쇄됐다. 페르난데스는 130만 명이 가까운 트위터 팔로어를 거느리고 있다. 2008년 가입 이후 2만 건 이상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회사 이벤트나 자신이 소유한 축구 팀 등 스포츠 팀의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영국 측



에어아시아의 토니 페르난데스 최고경영자(CEO). 신화뉴시스

구글립 킨즈 파크 레인저스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이 중에서 드물게 많은 소셜 미디어 팔로어를 거느리고 있다.

15일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호주 출신의 브랜던 테런트가 이슬람 사원(모스크) 두 곳에서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 최소 50명이 숨졌다. 테런트는 이 과정을 17분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페이스북은 뉴질랜드 경찰의 통보를 받고 용의자의 계정과 동영상 삭제하는 한편 그에 대한 찬사 글이나 총격을 지지하는 글이 올라오면 바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16일에만 150만 개의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With POSCO

Go Together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가치를 발견하고 기회를 창조합니다.

포스코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1967년 대우실업으로 출범한 이래
포스코그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더 커진 역할과 새로운 비전의 실현에 걸맞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80여 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철강, 자동차부품 등
상품의 거래는 물론 에너지 생산과 미래식량산업 등의
폭넓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제 트레이딩을 넘어, 회사의 지속성장과 세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posco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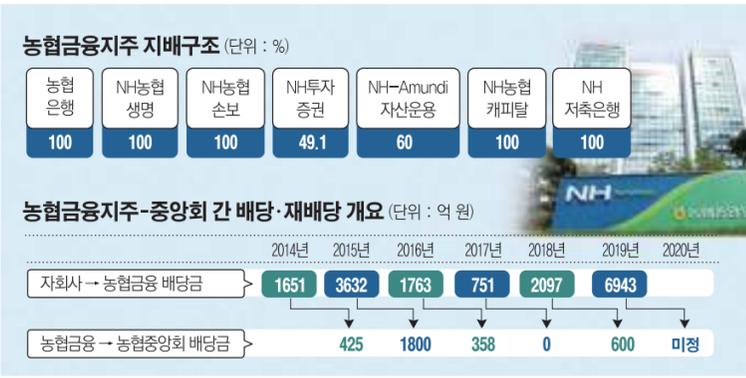
<농협중앙회>

농협금융, 600억 배당 결정... 내년 더 늘어날 듯

중앙회 손익 반영 기간 평균 2년
2016년 손실처리 여파 배당 '0'
작년 당기순익 1.2兆 '사상 최대'
은행, 배당성향 19.3%P 상승

농협금융지주가 올해 최대 단일주주인 농협중앙회에 600억 원을 배당한다. 지난해 해와 달리 '배당금 제로'의 오명을 벗고 농협의 '개시카우'로 다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4일 이사회를 통해 농협중앙회 배당금을 600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 배당금은 지난해 농협금융이 은행,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등 계열사로부터 배당받은 2097억 원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농협금융은 2016년 농협은행의 박배스(대규모 손실처리) 여파로 중앙회에 배당금을 내지 못했다. 반면 올해는 김광수 회장이 취임 초

부터 강조했던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범농협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금융 계열사의 수익이나 손실이 농협중앙회 손익에 반영되는 기간은 평균 2

년이 걸린다. 지주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지주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다시 농협중앙회에 배당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지주-중앙회 간 배당-재배당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7년 지주 회사 실적에 2019년 중앙회 수익금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 1조2189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회사 실적이 향상되면서 올해 배당성향은 은행과 증권이 지난해보다 각각 30%에서 49.3%, 42%에서 46.5%로 큰 폭 상승했다. 자산운용과 캐피탈의 배당성향은 각각 96.1%, 30%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주 계열사로부터 6943억 원을 배당받은 만큼 내년 중앙회 배당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농협금융의 주요 자회사인 생명과 손해보험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은행과 증권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농협손보의 경우 당기 순이익이 20억 원으로 급감했고, 농협생보는 지난해 적자전환하기도 했다.

지주 계열사에서 중앙회에 직접 부담하는 농업지원사업비(옛 명칭사용료)도 농협금융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올해는 농협은행 2997억 원(부과율 2.5%), NH투자증권 258억 원(0.31%), 농협생보 761억 원(2.5%), 농협손보 107억 원(1.5%) 등 총 4133억 원을 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도 “(농업지원사업비가 과도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건전성에 위협이 가지 않은 수준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우리銀, 첫 급여통장 출시 만 18~35세까지 가입 가능

우리은행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전용 통장인 '첫급여 우리통장'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통장은 만 18세에서 만 35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우대 조건을 급여이체 하나로 단순화했다.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은행 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신용대출 그리 우대 쿠폰과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이 제공된다.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수취한 고객은 급여일 다음 달 16일부터 한 달간 우리은행 수수료는 횡수 제한 없이, 타행 수수료는 5회 면제된다.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타행 수수료가 한 달간 횡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우리은행 수수료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영업 외 시간 출금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를 포함한다. 타행 수수료는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와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다.

박진산 기자 jinsan@

손보사-중기부, '수리비 갑질 조사' 기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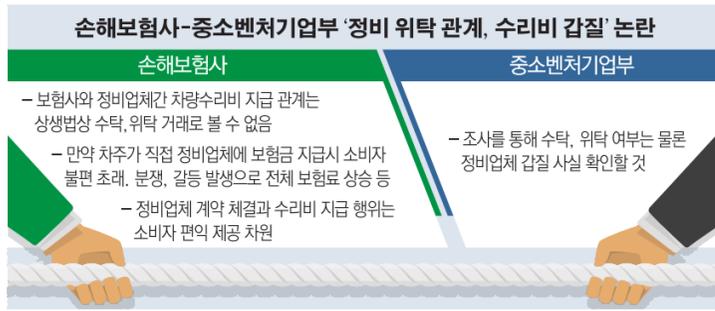
대행사 4곳 '위탁관계 성립 안돼'
중기부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손해보험사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자동차 정비업체 수리비 정상 지급 관련 조사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이날 중기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주요 손해보험사 모두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현대해상도 본사에 조사를 위해 방문한 중기부 조사관에게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돌려보냈다.

손보사는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는 일 이므로 수탁·위탁 관계가 아니라는 견해다. 또 해당 신고 역시 일부 정비소가 수리비 과대 청구건을 정당한 손해사정을 거쳐 지급한 만큼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조사를 거부한 손보사는 지난달 27일



손보협회와 공동명의로 중기부에 정비업체와 수탁·위탁 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수리비 지급 관계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상 수탁·위탁거래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가 차주에게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면 상생법 규제는 피할 수 있지만 차주가 직접 정비업체에 대응해 본

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 적용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정비업체가 차주에게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면 보험금 과잉지급으로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상생법이 적용되려면 위탁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손보사는) 아니다”라며 “일부 정비소의 부당 청구에 대

해 중기부 측에 설명했고 신고 전후 관계를 파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손보사가 사실 여부를 떠나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사를 거부한 이상 과태료 부과 시기의 문 제만 남았지 (과태료 부과) 안 할 수 없다”며 “중기부 조사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일단 받아야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생법 43조에는 조사를 거부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회사에 부과할 수 있어서 손보사는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손보사는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2019년 산업기술 R&D 3월·4월 교육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는 산업기술 R&D사업 수행자들의 효율적 사업수행 및 연구성과 향상 도모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온라인 교육을 확대 개편하였으니, 교육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9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교육개요

1. 교육목적 : 산업기술 R&D수행자를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 과제수행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등 R&D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R&D역량 강화 및 연구성과 제고 도모
2. 교육과정 : 기본과정(온라인) / 실무과정 / 전문과정

교육과정	교육일정	정원	지역	교육장소
기본과정	상시운영(~12.31.)	-	-	온라인
실무과정 (10:00~17:00)	03.27(수)	30	대구	KEIT 대구분원 2층 교육장
	04.05(금)	40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3층 301호
	04.09(화)	30	대전	KEIT 대전분원 4층 교육장
	04.18(목)	30	대구	KEIT 대구분원 2층 교육장
	04.26(금)	40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3층 301호
전문과정(사업계획서) (10:00~16:00)	04.03(수)	24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3층 307호
	04.10(수)	24	대전	KEIT 대전분원 4층 교육장
전문과정(사업비 관리) (14:00~18:00)	04.24(수)	24	대구	KEIT 대구분원 2층 교육장
	03.29(금)	30	대전	KEIT 대전분원 4층 교육장
	04.16(화)	30	대구	KEIT 대구분원 2층 교육장
	04.19(금)	40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3층 301호

모집요강

1. 교육일정 : 아래표 참조

교육과정	교육일정	정원	지역	교육장소
기본과정	상시운영(~12.31.)	-	-	온라인
실무과정 (10:00~17:00)	03.27(수)	30	대구	KEIT 대구분원 2층 교육장
	04.05(금)	40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3층 301호
	04.09(화)	30	대전	KEIT 대전분원 4층 교육장
	04.18(목)	30	대구	KEIT 대구분원 2층 교육장
	04.26(금)	40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3층 301호
전문과정(사업계획서) (10:00~16:00)	04.03(수)	24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3층 307호
	04.10(수)	24	대전	KEIT 대전분원 4층 교육장
전문과정(사업비 관리) (14:00~18:00)	04.24(수)	24	대구	KEIT 대구분원 2층 교육장
	03.29(금)	30	대전	KEIT 대전분원 4층 교육장
	04.16(화)	30	대구	KEIT 대구분원 2층 교육장
	04.19(금)	40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3층 301호

- * 상기 교육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교육일정 및 과목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교육장소별 주소(약도)는 교육홈페이지 참조
- KEIT 대구분원 : 대구광역시 동구 칠전로 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교육장
- KEIT 대전분원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 계동사 4층 교육장(탄방역 1번 출구 옆)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05 1관 3층(선릉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8분)
- * 대구 분원 외 교육장소는 주차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구 분원은 무료주차 가능)

2. 교육신청 : 2019년 3월 20일(수), 13시 부터 교육과정별 모집인원 내 접수
 - 교육신청 전, 로그인 또는 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tech.keit.re.kr) 필요
 - 원활한 교육신청 및 안내를 위해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이메일, 소속정보)는 반드시 입력
 - 교육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대표자 명의신청 및 대리신청 불가)
 - 기본과정은 교육신청 후, 나의강의실에서 학습, 설문, 시험 가능
 - * 기존 온라인교육 수강내역이 있는 경우, 신규 기본과정(온라인) 8과목은 자동 신청처리되며, 기 수강완료과목은 동일하게 완료처리 되나 미수강과목만 학습하시면 설문 및 시험진행이 가능합니다.
 - 실무과정은 KEIT 전담 R&D사업 '과제번호' 입력 후, 교육신청 가능
3. 교육비용 : 무료(실무 및 전문과정은 교재 제공)
4. 유의사항
 - 교육신청내역 확인 및 취소는 홈페이지(R&D교육센터) ▶ 나의 강의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교육참석에 어려움 경우 사전확보 부탁드립니다.(교육개강 3일전(주말제외)에는 취소 불가)
 - 교육신청 후 무단불참 및 불참실 참여시, 향후 1년 간 교육 참여가 제한됩니다.
 - 기본과정(온라인)의 경우, R&D규정을 참고하시면 학습 및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교육수료(기본과정) 후,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신청에 대한 내용은 FAQ를 참조하십시오. (itech 사이트) > 고객(교육센터) > FAQ > R&D교육 >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신청기준 게시를 참조
 - 네이비BAND : 네이비밴드 검색창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커뮤니티'를 검색하여 가입 및 R&D 문의 가능

* 문의 : 1544-6633

산업통상자원부 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서미림 저음 | 232페이지 | 값 13,000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하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 상대의 '마음을 훑치는' 말하기
-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볼 게 없다고? 삼성 주도 '8K 연합군' 전방위 홍보전

파나소닉·TCL 등 손잡고 내달 美 방송장비전 세미나 콘텐츠 부족 우려 의식... "4K 때도 전망치 뛰어넘어"

삼성전자 주도로 설립된 8K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8K 홍보에 나선다. 8K TV는 7680×4320 화소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초고선명 텔레비전이다. 풀HD TV 보다 16배, 4K UHD TV보다는 4배 선명하다. 하지만 8K TV 시장이 인프라 부족으로 올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열리는 방송 장비 전시회에서 8K의 특징점을 알릴 전망이다.

18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8K 협의체는 다음달 6~11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방송 장비 전시회인 'NAB(미국방송사업자협회) 쇼 2019'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8K 협의체는 올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9'에서 삼성전자가 주도 결성된 단체다. 8K 생태계 조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설립된 8K 협의체에는 삼성전자 외에도 파나소닉·TCL·하이센스 등 TV 제조사 3곳과 대만의 패널 제조사 AUO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달 10일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8K의 현재와 미래 △8K가 직면한 과제 △8K 협의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8K 협의체가 NAB 쇼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8K TV 시장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UHD(3840×2160)보다 4배나 더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지만 업계에선 대부분의 콘텐츠가 HD로 제작되는 상황에서 8K TV 시장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이미 8K TV를 시장에 선보인 TV 업체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미국의 IT전문 매체인 더 버지는 "8K 콘텐츠가 최근 제작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드론 촬영 영상이나 자연 풍경뿐이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훌루 등 메이저 업체들도 당분간 8K 영상물 제작 계획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8K 콘텐츠 부족으로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은 8K TV 판매 대수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 IHS마킷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8K TV 판매치를 33만8000대로 제시했다. 10월에 내놨던 예상치(43만 대)보다 21.4% 줄어든 수치다. 보고서는 내년과 2021년 전망치도 각각 189만1000대에서 175만1000대, 407만2000대에서 372만5000대로 수정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일각의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때는 비판론이 존재했지만, 경쟁력 있는 기술은 결국 급성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추종석 삼성전자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열린 QLED 8K 핵심기술 설명회에서 "2013년 4K UHD TV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 시장 전망치는 50만 대에 불과했지만, 그해 4K TV는 200만 대 팔렸다. 작년에는 1억 대가량의 4K TV가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4K를 출시했을 때 콘텐츠가 없는데 누가 사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현재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8K도 4K와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 삼성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삼성 8K QLED TV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8K 협의체란

- 설립목적** 8K 생태계 조성 및 저변 확대. CES 2019에서 삼성전자가 주도해 설립
- 참여기업** 삼성전자, 파나소닉, TCL, 하이센스, AUO

8K TV 판매량 전망치

(단위: 대)	※ 출처: IHS마킷
430,000 (2018년 10월 예상치)	338,000 (12월 예상치)

“에어컨 켜 줘”...신형 쏘나타, 말이 통하네

카카오 음성인식 비서 탑재 뉴스·날씨·길 안내부터 냉난방 공조장치 제어도



현대차와 카카오가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미니'의 기능을 신형 쏘나타에서 구현했다. 운전 중 스티어링휠의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물으면 인공지능이 뉴스·날씨·길 안내를 해준다. 또한 음성명령을 통한 공조장치 제어도 가능하다. 사진제공 카카오

현대차가 신형 쏘나타에 국내 최초로 차량 내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이용한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탑재한다. 차량용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는 스마트 스피커를 차량에 최적화해 적용하는 기술이다.

현대차는 21일 출시되는 신형 쏘나타에 카카오와 협력해 개발한 음성인식 대화형 비서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는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아이)'를 활용한 서비스로 현대차와 카카오는 2017년 초부터 스마트 스피커인 '카카오미니'의 다양한 기능을 차량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신형 쏘나타에 적용되는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의 카테고리는 △뉴스 브리핑 △날씨 △영화 및 TV 정보 △주가 정보 △일반상식 △스포츠 경기 △실시간 검색어 순위 △외국어 번역 △환율 △오늘의 운세 △자연어 길안내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스티어링휠에 위치한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뒤 필요한 정보를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물으면 '카카오 i'의 인공지능 플랫폼이 최적의 답을 찾아 대담

해 준다. 음성인식 길안내 서비스도 자연어 기반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됐다. 기존에는 "길안내 현대차 본사"나 "주변 맛집" 등으로 명령해야 인식이 가능했지만 신형 쏘나타에는 "현대차 본사로 안내해줘" 또는 "서울역으로 가자"라고 말해도 명령을 알아듣고 최적의 코스로 길안내를 시작한다.

음성명령을 통한 공조장치 제어도 가능하다는 점은 이번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의 또다른 특징이다. "히터 켜줘" "에어컨

켜줘" 같은 간단한 명령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 세게" "성에 제거해줘" "바람 방향 아래로"같이 사람과 대화하듯 얘기해도 운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춰 공조장치를 조작해 준다.

현대차와 카카오는 우선 차량 안전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 카테고리를 설정했다. 양사는 향후 지속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차량 내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포스코대우,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새출발

포스코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포스코대우는 18일 인천시 송도 포스코타워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새로운 사명은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겠다는 '인터내셔널'의 의미를 계승하면서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미래 가치를 키워 나간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 편입

10년 차를 맞아 포스코그룹 일원으로 소속감을 고취하고 그룹 일체감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

앞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967년 대우실업으로 출발해 2010년 포스코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그룹사들과 시너지를 발휘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사업 노하우와 80여 개에 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마찰 등 불확실성이

산재한 국제 환경 속에서도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통합사업회사로 도약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LNG·식량사업 등 핵심사업 밸류체인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및 트레이딩 사업 수익성 제고를 통해 실적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영삼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출범은 포스코그룹으로서의 일체감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그룹 해외사업 시너지 창출과 선도에 매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구광모 '인재 사랑' 연구·전문위원 21명 선발

LG전자 AI 등 전략사업 집중

LG가 구광모(사진) 회장 시대를 맞아, 미래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연구개발(R&D) 등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연구위원 17명, 전문위원 4명 등 총 21명의 연구·전문위원을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인공지능, 로봇, 자동차 부품, 모빌리티 디자인 등 전략사업 분야의 인재 선발을 확대했다. 특히, 전문성과 역량이 탁월한 인재 선발을 위해 러시아 소프트웨어연구소의 외국인 1명도 연구위원으로 선발했다. 연구개발 직군은 연구위원으로, 연구개발 이외 전문직군은 전문위원으로 선정된다. 연구·전문위원에게는 연구활동에 몰입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보상과 복리후생 혜택이 주어진다.

LG전자는 2009년부터 해당 직무의 전문성, 성과와 보유역량의 전략적 중요도를 감안해 매년 연구·전문위원을 선발해 오고 있다. 올해 선발된 인재를 포함하면 총 230여 명의 연구·전문위원들이 연구개발, 디자인, 구매, SCM(공급망관리) 등 전문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회장의 인재사랑은 그의 행보에서 드러난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행보로 LG의 융복합 R&D 클러스터인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 첫 대외 행보도 지난달 LG사이언스파크를 찾은 것이었다. 국내 이공계 석·박사 과정 R&D 인재 35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LG 테크 콘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젊은 인재 모시기에 나선 것이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고객과 사회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 싶은 LG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믿음과 최고 R&D 인재육성 및 연구 환경 조성 의지를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 회장의 인재 경영 철학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극명하게 두드러졌다. 순환주의를 타파하고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한 것. 구 회장은 흥범식 베인앤컴퍼니 코리아 대표를 지주사 경영전략 담당 사장으로 전격 영입했다. 또 3M 출신의 신학철 수석부회장을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에 앉혔고, 한국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출신의 김형남 부사장을 자동차부품 팀장으로 영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연인 눈 맞으면 배터리 충전? SK이노, 유쾌한 '생각 뒤집기'



SK이노베이션은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 상반기 신규 온라인 기업PR 캠페인인 '생각 뒤집기'편을 론칭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론칭한 온라인 기업PR 캠페인은 SK이노베이션이 영위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사례들을 유쾌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전개하며, 각 영상을 관통하는 '생각을 뒤집으면 혁신이 보인다'는 핵심 메시지를 기반으로 회사가 지향하는 미래를 전달한다.

총 다섯 편으로 구성된 이번 기업PR 캠페인은 △SK이노베이션-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SK아이이소재(가칭)-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FCW(2개편) △

SK종합화학-초경량 자동차 소재 △SK에너지-흡착(SK주요소 공유인프라 사례) 등 신성장동력 사업과 공유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추구하는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영상은 12초로 짧게 제작돼 주목도를 크게 높였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사진〉편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탑승 중인 전기차의 배터리를 완충시키는 기발한 상황이 연출된다.

변호선 기자 hsbun@

기업광고도 유튜브 1000만 뷰 ‘마켓 4.0 시대’ 활짝

‘고객 참여’ 마케팅 확산
청년층 SNS에 자발적 공유
“하이닉스 일하고 싶은 회사”
온라인몰·마트서 신차 팔고
‘아이언맨’ 캐릭터 입히기도

최근 혁신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제품 주기가 짧아지는 등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마케팅 패러다임도 함께 진화 중이다. 단순히 기업·고객 간의 관계를 넘어온·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고객의 참여까지 이끌어내려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고객 옹호 획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이른바 ‘마켓 4.0’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기업들도 고정관념을 깬 혁신적인 마케팅 고안에 여념이 없다. 인간 대 인간의 연결을 통해 고객의 참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상상 이상의 혁신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다.

◇반도체 만드는 회사 유튜브 회원이



13만 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패권은 동영상으로 넘어왔다. 짧은 시간 안에 상품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재미는 물론 고객의 공감까지 끌어낼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상품(평가)에 대한 전파력이 고객에게 넘어간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유튜브 공식채널 구독자 수는 각각 20만 명과 13만 명이 넘는다. 특히 스마트폰과 가전 등 소비재



를 판매하는 삼성전자와 달리 부품 기업인 SK하이닉스의 경우, 13만 명이란 구독자 수는 이례적인 수치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 올린 반도체를 의인화한 광고가 모두 1000만 조회수를 훌쩍 넘는 등 젊은 층에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젊은 세대에겐 ‘친근한 회사, 일해보고 싶은 회사’로 다가서고자 한 취지에 맞는 성과가

왼쪽부터 반도체를 의인화한 SK하이닉스의 기업 광고, 삼성전자 웹드라마 ‘고래먼지’ 포스터, 현대차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각 사 제공



◇온·오프라인 상호작용 극대화 “고정관념 깨자” = 마켓 4.0 핵심요소 중 하나가 기업과 고객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하다.

쌍용자동차는 최근 자동차 구매 경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8년 만에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돌아온 신형 코란도를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마트라는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차량을 둘러보고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판매 방식을 바꿨다. 이마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초소형 전기자전거인 르노 ‘트위지(Twizy)’의 제품 상담부터 출고까지 모든 과정을 이마트 매장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은 세계 최초로 영화 ‘아이언맨’ 캐릭터를 적용한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을 출시하기도 했다. 영화를 통해 익숙해진 아이언맨 슈트의 전용 레드 컬러가 포인트 컬러로 적용됐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판매자나 기업이 고객서비스의 주체였다면 이제는 대중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고객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고객 참여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마켓 4.0 내에서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송영록 기자 sy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the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기아차, 아마존과 손잡았다

전기차 충전기 美 판매 협약

기아자동차가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손잡고 미국 현지 판매망 확대에 나섰다. 기아차가 아마존과 함께 판매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미국 법인(KMA)은 최근 아마존 판매망을 통해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정용 충전기 구매는 물론, 설치 서비스까지 포함한 윈스톱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비스 해당 차량은 2019년형 전기차 쏘울 EV와 니로EV, 그리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유틸리티(K5)와 니로 등 4가지 모델이다. 고객이 아마존을 통해 240볼트 충전기를 선택 및 구입한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설치까지 해준다. 기아차는 올해 부진한 판매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특히 아마존 등 판매망 확대로 그동안 주춤했던 전기차 판매 반응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기아차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에 시달렸다. 기아차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2.4% 증가한 228만594대를 팔았지만, 미국 시장에서만 판매량이 1.7% 감소한 59만583대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친환경차 판매 성적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니로 PHEV 누적 판매량은 총 784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순위 12위를 차지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경총 “노조에 시민운동가 가입도 허용하라니…”

경사노위 ‘ILO 비준 제언’에 우려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사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반드시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현재도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사항,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 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해고자, 실업자, 시민운동가 등 기업 밖에 있는 어느 누구도 노동조합의 가입이 허용될 경우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가 더욱 불안정한 구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경영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의 편중, 제1단계와 제2단계 논의의 차별적 진행, 경영계 제기사항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무력화 등에 비추어 이 위원회가 객관적·중립적이지 못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세상 모든 새로움의 시작



국내 최다 실외 미세먼지 측정기로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개선하고
5G 스카이스hip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 스마트 시티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기술, KT 5G가 시작합니다



5G로 연결된 360 카메라를 통한 도시 안전 모니터링 **5G 스카이스hip**

5G 에어맵 정보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5G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5G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5G 에어맵 코리아**

PEOPLE. TECHNOLOGY. **kt**

앱스토어에서 '에어맵코리아(AirMapKorea)'를 다운로드 하세요.

中 게임시장 빛장 열리나... 2년 만에 판호 발급 재개

韓 '로스트킹덤' IP 활용한 현지 모바일게임 판호 발급
해외게임 판호는 미지수...허용 땀 국내업체 수혜 기대

문이 굳게 닫혀 있던 중국 게임시장에서 한국 게임 IP를 활용한 게임이 내지판호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중국시장이 점차 열릴 것이라며 긍정적인 분위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로스트킹덤'의 IP를 활용해 만든 현지 모바일 게임(현지명 末日的第53天·사진)이 중국에서 내지판호를 발급받았다. 판호는 중국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허가권으로 중국에서 게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로스트킹덤은 국내 팩토리얼게임즈가 개발하고 네시삼십삼분이 2016년 1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이다. 출시 당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양대 마

켓 최고 매출 상위권에 오르며 흥행을 이끌었으며 모바일 첫 오픈월드 게임으로도 알려져 있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호 발급이 내지판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IP를 활용한 게임이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게임 시장을 규제하며 자국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의 판호 발급을 불허하며 게임시장을 규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중국 정부가 판호 발급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시장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2018 중국 게임산업 콘퍼런스'에서도 중국 업계 관계자는 "일부 게임 심사를 마치고 판호 발급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을 지난해 3월 판호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 게임은 물론

중국 자국 기업의 게임도 모두 규제 대상이었다. 이유는 게임의 폭력성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게임 규제를 언급하며 강화하기도 했다.

판호 발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게임업체들의 중국 진출도 전면 중단됐다. 국내

게임 중에서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된 게임도 포함돼 있었다.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큰 흥행을 거두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던 게임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 판호 발급이 희소식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판호 발급을 재개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번 내지판호 발급 이후 중국 국적 외의 게임에 부여하는 '외지판호'를 발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게임은 500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전 세계 게임 시장 중 최대 규모를 나타낼 정도로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국내에서 흥행한 게임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국내 업체의 실적 개선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SKT, 5G망에 최고 보안기술 '양자암호' 적용

이달부터 5G 가입자 인증 서버에 IDQ사 '양자난수생성기' 적용
양자 특성 이용해 송·수신자만의 암호키 만들어 도청·해킹 차단

SK텔레콤이 5G 통신망에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5G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SK텔레콤은 18일 서울 을지로 삼화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5G 이동통신 이용을 위한 첫 단계인 가입자 인증 서버에 양자암호통신 기술 적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달 5G가 상용화되면 자율주행, 금융, 원격의료, 스마트팩토리 등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모든 정보가 촘촘하게 엮여 있는 만큼 강력한 보안이 요구된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Quantum,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의 특성을 이용해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Key)를 만들어 도청을 막는 통신 기술이다. 현존하는 보안기술 가운데 가장 안전한 통신암호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통신 방식을 공을 주고받는 행위로

비유하면, 제3자가 몰래 공을 가로챈 후 복제본을 전달해도 탈취 여부를 알기 어렵다. 반면 양자암호통신은 비누방울을 주고 받는 것과 같아, 제3자가 비누방울을 건들기만 해도 형태가 변형돼 해킹이나 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5G 가입자 인증 서버에 양자암호 분야 세계 1위 기업 IDQ사의 양자난수생성기(QRNG·사진)를 적용했다. 양자난수생성기는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 패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무작위 숫자를 만드는 장치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의 위협을 봉쇄한다.

가입자 인증 과정은 단말 사용자가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모든 음성·영상 데이터, SMS 등을 주고받기 전에 정상 가입자로 인증받는 최초이자 필수적인 단계다. 만약 인증키 값이 유출될 경우 고객 정보가 도청, 해킹 등 범죄에 쓰일 수 있어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SK텔레콤은 우선적으로 5G망에 양자암호 기반 인증 서버를 적용했고 다음 달 중 LTE망까지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



다. 같은 달 서울-대전 구간에 IDQ사의 양자키분배(QKD) 기술을 연동해 5G와 LTE 데이터 송수신 보안을 강화한다.

양자키분배는 양자암호통신의 핵심 기술로 송신부와 수신부만 해독할 수 있는 도청 불가능한 암호키를 생성한다. 향후 SK텔레콤은 양자암호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양자 네트워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강종렬 ICT 인프라센터장은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5G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SK텔레콤 이용 고객들은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SK텔레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5G 통신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글로벌 성장 토대 만들어야"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도 시작은 모두 소상공인이었다. 적극적인 지원·육성 정책으로 얼마든지 세계적인 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적 성장 중심에서 육성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그 토대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소상공인이 총 사업체의 85%, 종사자 수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과당 경쟁, 높은 폐업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이후 토론회에는 이종영 교수를 포함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권형돈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조재연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은 작년 7월 김명연 의원이, 올해 1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종영 교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아래에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두고, 소상공인기본법을 만들어 추진 체계 같은 것은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옮기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능별로 특화된 사업은 장래에 분야

국회서 대토론회...소상공인聯 회원 등 1400여명 참석
"세계적 기업도 시작은 소상공인, 육성책 적극 펼쳐라"
'분야별 개별 법률' '대통령 직속 정책위 설치' 의견도

했다. 이어 "소상공인 보호, 지원, 육성을 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1400여 명을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학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제대로 서서 소상공인이 소외당한다는 목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제정돼 5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반면 소상공인은 제대로 된 기본법조차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추사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전동킥보드, 자전거 전용 도로 달린다

4차위 '5차 규제혁신 해커톤' 먼히 면제...주행안전기준 마련

앞으로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련 규정 미비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관련 업체 간 끝장 토론을 통해 대책을 내놨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1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14일과 15일 경기도가 평균에 위치한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전동킥보드의 25km/h 이하의 속도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전기자전거

(페달식)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었지만 전동킥보드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불법 운행과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4차위는 전동킥보드도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의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은 각각 담당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도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 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행 관련 제품안전기준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4차위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다만,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주행을 금지된다.

이번 논의에는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모토벨로 등 모빌리티 기업들과 관련 협회, 시민단체들도 참여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강상의 효과 등'의 의미는 '신체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 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하나만 사도 무료배송이라더니...” 쿠팡, 슬그머니 유료화

15일부터 사전 고지 없이
“1만9800원 미만 유료배송”
쿠팡 ‘한시 이벤트’ 설명에도
고객 비난 이어질 가능성



史

이커머스 배송 전쟁의 도화선이 된 쿠팡의 ‘로켓배송’이 무료 서비스를 슬그머니 철회하고 유료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 한 개를 구입해도 무료 배송”을 강조해 고객 수를 늘려 나갔던 쿠팡이 무료 배송 상한 금액을 1만9800원으로 지정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해당 금액 이하로 구매할 때 별도의 배송료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5일 오후부터 1만9800원 미만의 ‘로켓배송’ 상품에 배송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로켓배송’은 지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배달되는 빠른 배송 서비스다.

쿠팡은 2016년 10월 로켓배송의 배송 기준액을 98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

터 로켓배송 상품의 최소 주문 한도를 없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기존 배송비보다 저렴한 몇천 원짜리 상품 1개를 주문해도 배송료를 부담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이번 유료화 카드도 사실상 쿠팡 입장에서는 기존 배송 기준액을 부활시킨 셈이다. 쿠팡이 무료로 진행해오던 ‘로켓배송’에 다시 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 배경은 충분한 홍보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소프트뱅크의 추가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도

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쿠팡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의 의지는 현실화하고 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쿠팡의 월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12월(1조176억 원)에 이어 올해 1월(1조515억 원)에도 월 매출 1조 원을 넘어섰다. ‘로켓배송’이 유료로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는 8088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성장세다.

여기에 최근 론칭한 유료 멤버십 서비스 ‘로켓와우’의 인착도 유료화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론칭한 ‘로켓와우’는 1주일 만에 15만 명, 4개

월 만에 가입자 160만 명을 돌파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로켓배송’을 이용하던 일반 고객을 유료 회원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로켓와우’는 월 2900원의 유료 멤버십으로 가입 고객은 무료로 배송 및 반품이 가능하다. 특히 ‘로켓와우’ 회원에게는 △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 ‘로켓프레시’ △ 아침 주문 시 저녁에 받을 수 있는 ‘당일배송’ 등 다양한 멤버십 전용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90일 무료 체험 프로모션 중이다.

그러나 무료 배송 상한 금액에 대한 고객 고지가 없었던 것은 고객들의 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이벤트성이라 의무는 없지만, 미리 고지했다면 고객들의 쿠팡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무료 배송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 무료 서비스는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는 한시적 이벤트였다”며 “‘로켓와우’에 가입하면 무료 배송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순차적으로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롯데쇼핑 4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변화·성장 이미지 초점

롯데쇼핑이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40주년 엠블럼을 발표했다.

18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창립 40주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롯데쇼핑의 이미지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40주년 엠블럼을 제작했다.

40주년 엠블럼은 축하를 상징하는 선물박스의 리본과 숫자 40, 그리고 anniversary 영문까지 세 가지 디자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디자인했다.

엠블럼의 높은 가독성과 창립 40주년을 맞아 사용되는 모든 플랫폼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플하게 디자인했고, 롯데의 상징인 레드 컬러가 가미된 고급스러운 다크브라운 단색을 메인 컬러로 지정했다.

롯데쇼핑은 1979년 11월 설립됐으며 현재 백화점, 마트, 슈퍼, 립스, e커머스사업본부 총 5개의 사업본부로 구성돼 있다.

이정해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장은 “창립 40주년 엠블럼은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의 소통 플랫폼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더 좋은 서비스와 상품으로 고객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홈플러스도 ‘초저가 경쟁’ 비법은 ‘EMD’ 가입

(유럽 최대 유통연합)



시중제품 반값에 獨 브뤼겐 시리얼 판매
유럽산 식품 도입 차별화·가성비 ‘두 토끼’

홈플러스가 유럽 최대 유통연합인 EMD (European Marketing Distribution AG) 가입을 통해 구사하는 초저가 전략의 첫 작품은 독일산 시리얼 브랜드로 낙점됐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14일부터 독일 브뤼겐(Bruggen)사에서 수입한 시리얼 5종 판매에 들어갔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한팩(500g)당 3600~3870 원으로 100g당 720~774원에 불과해 시중 판매되는 시리얼 대비 최대 40~50% 저렴하다.

낮은 가격의 비결은 홈플러스가 EMD 회원사로 싸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올 1월 EMD 회원으로 가입했다. EMD 회원사끼리는 각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저렴하게 들여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회원사가 거래하는 제조사와 상품 개발을 협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독일 회원사인 마칸트(Mak-ant)에 납품하는 브뤼겐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MD는 1989년 설립된 유통 연합이다. 회원사의 연간 매출은 총 258조 원으로 월 마트를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다. 각 나라당 1곳의 업체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홈플러스는 국내 유일 회원사다.

독일 마칸트를 비롯해 노르웨이 노르게스그루펜(NorgesGruppen), 스페인 유로마디(Euromadi), 이탈리아 ESD, 네덜란드 슈퍼유니(Superunie), 호주 울워스(Woolworths) 등 20개국 유통사가 회원으로 속해 있다.

홈플러스는 EMD 가입에 발맞춰 최근 가열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초저가 경쟁에 적극 뛰어들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영국계 테스코(Tesco)가

대주주이던 시절부터 테스코의 PB(자체 상표)를 싸게 들여와 판매해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저가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당시 연간 5000억 원이 넘는 해외 소싱은 2015년 테스코와 결별 후 최근 3년간 10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사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경쟁사는 초저가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재빨리 치고 나갔다.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홈플러스는 자사 PB ‘심플러스(simplus)’를 론칭했고, 올 초에는 천안에 300억 원 규모의 ‘미트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해 신선식품 초저가 판매의 발판을 마련했다.

EMD 가입 역시 초저가 정책에 힘을 보탠다. 유럽산 가공 식품을 싸게 판매해 차별성과 가성비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산이다. 우선 회원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와 맥주, 치즈, 파스타 등을 연내 공동 출시해 초저가 전략을 적극 구사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EMD 가입을 계기로 3년 내 해외 소싱 상품을 1조 원대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사 PB 제품의 EMD 회원사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심플러스 일부 상품 판매를 추진 중”이라면서 “몇몇 업체에서 상품과 수요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리츠 상장 철회로 4조 원대의 자금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온라인 강화 및 스페셜 매장 등 중기 계획에 경고음이 커진 상태다.

우선 홈플러스는 인천 무의도 연수원을 매각해 긴급 처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 연수원은 2011년 테스코가 700억 원을 투자해 세운 시설이다.

남주현 기자 jooh@



가장 예쁘고 맛있는 오렌지

롯데마트가 27일까지 캘리포니아산 ‘카라카라 오렌지(8~10개/1봉)’를 6900원에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라카라 오렌지는 주황빛이 도는 껍질에 붉은 빛을 띠는 과육을 지녀 ‘가장 예쁜 오렌지’로 불린다. 특히 당도가 약 15~16브릭스(brix)로 일반 오렌지보다 20%가량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롯데마트

日 관광객 사로잡은 ‘정용진표 화장품’

(스톤브릭)

홍대 안테나숍 매출 목표 2.7배 ↑
미니사이즈·혼합구성 장점 어필

‘정용진표 화장품’으로 입소문을 탄 이마트의 색조화장품 브랜드 ‘스톤브릭’이 개점 한 달 만에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화장품 브랜드와 달리 중국인보다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점이 눈길을 끈다.

스톤브릭은 지난달 14일 서울 홍대 인근에 문을 연 안테나숍의 1개월 매출이 목표치를 2.7배 초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공식 론칭에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이미지를 올리면서 화제를 모았고 제품 패키지에 블록 장난감인 ‘레고’ 콘셉트를 차용해 재미를 더했다.

홍대점은 인근 상권에 화장품 로드숍 7~8개가 모인 격전지임에도 평균 객단가가 3만4000~3만5000원에 이르며, 평일 400여 명, 주말 1000여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객의 4명 중 1명은 외국인



스톤브릭 홍대점 모습. 사진제공 스톤브릭

이며, 이중 70%가 일본인 방문객(전체의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화장품 브랜드와 달리 중국인 방문객(전체의 5%)에 비해 일본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stonebrick 태그를 단 게시물 상당수도 일본어 게시물이 차지하고 있다. 스톤브릭은 상품 크기가 작고 귀여운 점과 통통 튀는 색감이란 점이 일본인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스톤브릭은 판로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천공항면세점 화장품 편집숍에 입점 완료했으며,

조만간 2~3곳의 타 채널 매장에도 입점할 계획이다.

스톤브릭은 19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색상의 콘셉트와 디자인으로 20대 초반의 젊은 층 소비자들을 집중 타겟했다. 20대 여성은 스톤브릭 구매 고객의 70%를 차지한다. 뚜렷한 취향과 개성을 가지고 주도적인 소비를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채롭게 색을 조합해 쓸 수 있도록 상품을 기획해 관심을 끌었다.

한 개의 홀더에 두 가지 색채의 립스틱을 각각 붙여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색을 혼합해 나만의 색을 찾아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빨강·노랑·글리터 등 다양한 발색·제형의 컬러를 혼합해 쓸 수 있는 색조 립스틱 8종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매출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다.

김계숙 스톤브릭 팀장은 “컬러·스마트·편 세 요소로 차별화를 이룬 스톤브릭이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뤘다”며 “신규 NB 색조브랜드로서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판로를 지속 확대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경협株 급등에 ‘팔자’… 내부자들 차익 실현 ‘눈살’

현대엘베 주가 5만 원 경층
현 회장 동생 일가 매도 나서
제이에스티나 실적 발표 앞두고
특수관계인 120억 차익 남겨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에 이른바 ‘경협주’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 내부자들이 자사주를 대거 매도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엘베인터내셔널 최대주주 현정호는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 씨를 보유 주식 6000주를 11만 원 후반에서 12만 원 중반에 매도했다. 제부 변찬중 씨도 같은 기간 보유 주식 전량인 1만5870주를 전량 매도해 차익 실현에 동참했다. 남북경협 대장주 격인 현대엘베인터내셔널 주가는 지난해 10월 7만5000원대에서 지난달 12만8900원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급등

의 수혜자는 최대주주 일가에게 돌아간 셈이다.

제이에스티나도 남북 경협주로 여겨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주목할 대목은 실적 악화 공시를 하루 앞두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총 120억 원의 차익을 남기면서 구설수에 올랐다는 점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지난해 10월 최저 4700원까지 떨어졌지만, 1월 초 1만

50원까지 치솟았다. 김기석 대표 일가는 2월 초부터 현금화에 주력했다. 김 대표는 11일까지 보유지분 중 34만6653주(2.10%)를 매도했다. 처분 가격은 9000원대로 총 31억1000만 원 규모의 현금을 손에 쥔 것으로 추정된다.

김 대표의 친형인 김기문 회장의 자녀 유미·선미 씨는 각각 6만2000주, 8만5000주를, 특수관계인인 최희진, 김명중 씨도 4만8750주, 7230주를 팔아치웠다. 같은 날 제이에스티나는 보유한 자기 주식 80만 주(54%) 역시 총 70억3200만 원에 처분하면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문제는 악재 공시를 하루 앞두고 최대주주 일가가 보유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는 점이다. 처분 다음 날인 12일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1677% 급증한 8억57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가도 급락세로 돌아섰다.

용평리조트는 최대주주인 통일교 재

단과 지분 관계가 부각되며 새로운 남북 경협주로 떠올랐다. 평소 대비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한 용평리조트는 신규 선임된 이사가 자사주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지분 전량을 팔아치우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전우하 이사는 올해 1월 1일자로 용평리조트 비동기임원으로 신규 선임된 인사다. 선임과 동시에 1427주를 받았으며, 지난달 7일 주당 9250원에 전량 장내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난티는 금강산 골프리조트 소유 소식에 이어 짐 로저스의 사외이사 선임까지 더해져 신규 경협주에 이름을 올렸다. 주가는 지난해 말 12월 초까지 8000원대에서 움직였지만, 올해 초 최고 3만165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자사주 142만8495주를 주당 2만1350원에 장내 매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 상승 수혜는 오히려 회사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고점 수준에서 자사주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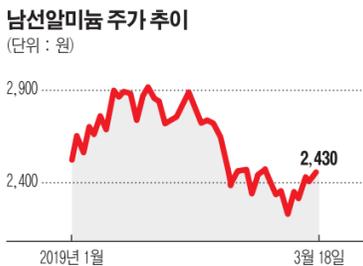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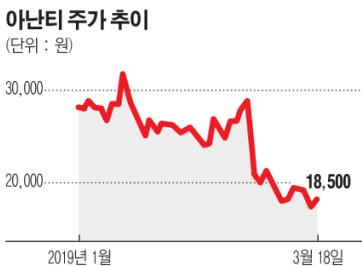
회사 측은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친환경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라고만 밝혔다.

이밖에 2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인디에프 주가도 경협 기대감에 1월 말 4350원까지 급등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글로벌세아가 650만 주를 고점 수준인 3269원에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대아티아도 비동기임원인 안진 전무가 보유주식 2만 주를 52주 신고가 수준인 1만100원에 매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테마장세에서 대주주 차익 실현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는 회사에 영향권을 행사하는 계층임에도 대규모 차익을 실현하는 건 현재 주가가 고점에 근접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며 “대북경협은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런 신호에 유의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정희 기자 ljh@

들쭉날쭉 롤러코스터… ‘테마株’ 주의보

북미정상회담 개최·결렬 영향
아난티 등 경협주 급등락 반복
재보궐 선거 관련 정치주 등
상승모멘텀 없이 테마주 형성돼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남북경협 테마주의 주가변동률은 110.6%에 달했다. 특히 남북경협 테마주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89%로 외국인(10.4%)과 기관(20.1%)보다 월등히 높다. 주목할 점은 남북경협으로 묶인 테마주의 평균 영업이익은 98억 원(2017년 결산 기준)으로 상장사 전체 이익의 14.1%에 불과하고, 당기순이익은 1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대선 관련주 역시 54.6%를 기록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실제 한창제지의 경우 최대주주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한창제지 측은 “최대주주와 황교안 대표가 성균관대학교 동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친분은 없어 상관이 없다”고 밝

혔지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기간 내내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다.

남선알미봄은 이낙연 총리의 동생인 이계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삼환기업과 같은 그룹(SM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이낙연 테마주’로, 영신금융은 이정우 대표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분류됐다. 이외에도 대한강업, 엔케이, 라이트론과 같은 수소차주부터 웰크론, 모나리자, 오공 등 미세먼지주 등 테마주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재보궐 선거 등에 따른 정치주를 비롯해 수소차 남북경협주, 외로운 테마 수임허용 관련주 등 각종 사회 이슈에 따른 테마주가 형성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말고 기업 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전자투표하고 기프티콘 받으세요”

NH투자증권, 27일 주총 참여 이벤트

NH투자증권은 27일 개최되는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고,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예탁결제원 K-eVote에서 전자투표를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한 주주 중 선착순 3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전자투표 가능 기간인 3월 26일 17시까지 진행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 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전자투표는 해당 기업의 주주 총회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NH투자증권은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201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총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돼 있어 소액 개인주주 및 소액 법인주주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기필 NH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장은 18일 “앞으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오너家 2~3세 사내이사 등판

▶1면서 계속

삼광글라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이복영 회장의 차남인 이원준 전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 전무는 2011년 삼광글라스에 입사했다. 업계에서는 이 전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전무가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상황에서 관행에 따라 사내이사로 손쉽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CGCG는 이 전무가 계열사 균정에너지 주주 주주 중 한

명으로 회사 기회 유용과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자산을 상당히 증식했다고 판단, 이사 선임에 반대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올해 주총을 통해 △현 대백화점은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일동홀딩스는 오너 3세인 윤용섭 일동제약 사장 △유유제약은 유원상 부사장 △한국제지는 단우영 해성디에스 사장과 단우준 해성디에스 부사장 △깨끗한나라는 최현수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할 예정이다.

오너일가의 사내이사 선임은 책임경영의 의도도 있지만, 회사의 이익보다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한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사회 의사결정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사

내이사 선임이 승계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국내 상장기업들의 적절한 승계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상장기업은 승계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배구조 수준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스튜어디스 십 코드의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등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요청이 여러 방면에서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의 모범적 승계정책 운영 사례 등을 기반으로 적절한 승계정책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3월 18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178,400	11,700 (7.0%▲)
리플	351	- (-)
라이트코인	66,250	-1,000 (1.5%▼)
대시	102,600	2,500 (2.5%▲)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모네로	57,850	- (-)
비트코인골드	14,940	340 (2.3%▲)
이더리움 클래식	4,886	-4 (0.1%▼)
퀀텀	2,768	68 (2.5%▲)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적용)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시
주식거래수수료 10년 무료 + 순금 총 100돈!

*비대면 최초 위탁 신규, 유관기관제비용제외, ~3/31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378호(2019년1월31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대전·위례·수원·성남 등 노면전차 추진

재건축 규제 강화에 노후아파트 '계류'

수요 많던 동남권 '20년 이상'
4개월간 시세 3.62% 하락
서울 평균보다 2배 더 떨어져

지난 4개월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률
(단위 : %)



서울 재건축아파트들이 투자 매력을 잃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개입 강도를 높이면서 사업성이 예전만큼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가능성으로 투자 수요가 높던 서울 노후 아파트들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 약세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연평균 20년 이상 서울 아파트 시세는 1.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1.39% 하락한 것과 비교해 낙폭이 0.5%포인트 큰 수준이다.

'20년 이상'에 이어 △'5년 초과~10년 이하' -1.82% △'5년 이하' -1.69% △'15년 초과~20년 이하' -1.02% △'10년 초과~15년 이하' -0.84% 순으로 낙폭이 컸다.

특히 투자 수요가 많았던 강남 노후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20년 이상 아파트는 이 기간 3.62% 내려가며 동남권 평균 변동률(-2.64%)보다 1%포인트 큰 낙폭을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에 20년 이상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와 함께 서울 상승장을 이

끌었다. 전년 동기(2017년 11월 13일~2018년 3월 12일) 20년 이상 아파트는 4.95% 상승했다. 서울 평균(4.23%)을 웃도는 상승률이다. 투자 수요가 쏠렸던 동남권은 20년 이상 아파트가 8.63% 올랐다.

정부가 투자 수요 차단 정책을 펼치자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의해 일반분양을 통한 기대 수익이 확 줄어든 상황인 데다 안전진단 통과 문턱을 높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진행하던 사업에 서울시가 '공공성' 취지로 '이래 라저래라' 하면 사업성이나 속도나 모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일반분양 줄이면서 공원이거나 광장을 늘리게 하면 조합이 또 반발하면서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트램세권' 호재 될까

공사비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
지상에 설치... 상권 활성화 도움
개통 앞둔 지역 가치 높아져

최근 각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램은 지하철이나 경전철보다 빠른 시간 안에 조성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교통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전을 비롯해 위례, 수원, 성남, 화성, 제주 등에서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램은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다.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 움직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공사비도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 지하철, 경전철과는 다르게 지상에 설치된 노면으로 다니기 때문에 역과 노선을 중심으로 방문 및 유동인구가 증가해 일대 상권이 활성화된다. 여기에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정주 여건 개선도 이끌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400여 도시에서 운행 중이다.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가 있다. 과거 철강·화학·기계공업의 쇠퇴와 심각한 대기오염, 교통정체 등으로 침체에 빠진 스트라스부르 시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트램을 도입했다. 이후 1994년 트램 첫 노선을 개통해 지역 내 교통량 감소, 소매 상점 매출 증가 등의 운영 효과를 거뒀다.

한발 늦었지만 국내에서도 트램 사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트램 개통을 앞둔 지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이 전국 최초로 트램 도입을 선언한 후 위례, 수원, 성남, 화성, 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트램 3법'으로 불린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지자체들이 앞다퉀 트램 도입에 나서서 이유다.

특히 1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 건설사업이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시는 트램 개통 시 취업유발 효과는 9661명, 생산유발 효과는 1조546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위례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 역시 1월 국토부가 공공주도 사업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친환경·고효율 교통수단으로 트램이 각광받으며, 정부도 트램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렇다 보니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은 향후 높은 미래 가치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트램 조성으로 주목받는 주요 분양단지 (*=오피스텔)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실	분양시기	시공사
하남시 위례도시 A3-4b블록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102~144	875	4월	우미건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23-152번지	수원역 한라 비발디 퍼스트	18~49	(공)288 *522	3월	(주)한라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30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84~104	1254	3월	현대산업개발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	84~234	1306	3월	현대산업개발

※출처 : 각 건설사

치과계의 적폐를 파헤치는 치과의사 K의 외로운 전쟁



본격 치과 담합 리얼 스릴러

임플란트 전쟁



[본문 내용 중...]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벌어진 얼굴을 한 강미은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고 있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던 그는 늦게 들어온 경호를 잠깐 쳐다보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렸다. "말로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환자들이 보기에 가격이 싸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표현도 전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민원 건 취소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미 숙이고 있던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인사했다.

고광욱 지음

지식나머

'봄 이사철' 옛말...거래 끊긴 서울 부동산

매매거래지수·집값 동반 하락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봄철 특수가 사라졌다. 거래는 줄고 수요 심리도 경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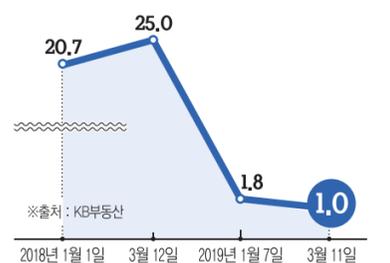
1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1일 기준) 서울의 매매거래지수는 전주보다 0.7 하락한 1.0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지수는 거래의 활발함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100이 기준치다. 100을 밑돌수록 '한산함' 비중이 높다는 것을, 100을 초과할수록 '활발함'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매매거래지수는 작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1.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셋째 주에는 0.7까지 하락했다. 작년 1~3월에 이 지수가 20~35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집을 사겠다는 수요 심리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달 셋째 주 매수우위지수는 38.2로 전주보다 1.0 하락했다. 매수우위지수 역시 100을 기준치로 하며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음'을, 100을 밑돌수록 '매도자가 많음'을 각각 의미한다.

올해 1월 첫째 주에 51.0으로 시작했던 매수우위지수는 줄곧 하락세다. 해당 지수가 작년 1월부터 3월 마지막주까지 98~127 범위에서 등락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으로 수요 심리가 사그라진 셈이다.

매매거래지수 추이



거래량이 드물다 보니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전주(-0.04%)보다 하락폭이 커진 -0.08%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0.34%) △강동(-0.23%) △도봉(-0.12%) △강남(-0.11%) △강서(-0.10%) △양천(-0.05%) 순으로 하락했다. 매매가격이 오른 자치구는 광진(0.01%), 용산(0.02%), 구로(0.04%) 등 3곳에 그쳤다. 변동률이 0%로 나타난 곳은 강북, 금천, 동대문, 동작 등 12곳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는 송파는 초기 재건축 단지인 신천동 장미 1차가 4500만~1억 원가량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강동의 경우 매수문의가 끊기면서 명일동 삼익그린 2차가 1000만~5000만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희희 기자 jhsseo@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

박원순 시장 “도시발전 저해·주민공간 단절…핵심과제로 선정”

광진 등 3개 구청장과 본격 협의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에 대해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방문해 지하철 2호선 지하화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에 대해 “도심 한 중심축을 지나면서 도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축을 기준으로 좌우 주민 공간을 단절했다”며 “공익성·공공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리 하나만 건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타워가 있다”며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관계자는 “동서울터미널을 신축하면 유동 인구가 몰리고 좋은 호텔도 들어서 외국인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지하철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검토



2호선 지상 구간이) 건설될 지도 오래돼 중장기적으로는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하철 2호선의 경우 한양대~잠실 9.02km, 신도림~신림 5.82km, 영등포구청~합정 3.50km 등과 지선인 신담~성수 3.57km 등 총 21.91km 구간이 지상에서 운영 중이다. 2호선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광진구와 서울시는 각각 2조 원, 3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해당 자리에서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이 우울한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시 핵심 정책 연구 과제로 착수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 구간은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지역 주민의 지하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성동, 광진, 송파 지역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 그간 관공서 위주로 산발적으로 전달된 내용이 이젠 강력하게 전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광진구는 1월 한양대~잠실역 구간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2016년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 사업 타당성 용역에서는 비용면의(B/C)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광진구 관계자는 “타당성은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인데 적자가 나더라도 공익성, 공공성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지하철 역내 상업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통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아찔한 사고…실수로 발사된 유도탄

적 항공기 격추용 중거리 미사일 ‘천궁(天弓)’ 1발이 정비작업 중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천궁으로 보이는 물체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왼쪽 아래는 2011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천궁이 탑재된 발사대를 늘리는 모습. 연합뉴스

적 항공기 격추용 중거리 미사일 ‘천궁(天弓)’ 1발이 정비작업 중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천궁으로 보이는 물체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왼쪽 아래는 2011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천궁이 탑재된 발사대를 늘리는 모습. 연합뉴스

창문 없는 ‘별집 고시원’ 못 짓는다

서울시 ‘주거기준’ 첫 마련

방면적 7㎡이상·창문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

서울시내에서 고시원을 지을 땐 방 넓이가 7㎡를 넘어야 한다. 또 각 방마다 환기와 유사시 탈출을 위한 창문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각자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앞으로 시의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한다. 민간

까지 확산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또 방 실효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혜 대상은 약 1만 가구로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 원을 투입한다. 시가 지원은 시작한 7년간 가장 많은 약 75개소에 새롭게 설치된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고시원 밀집지역엔 공유공간을 설치한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법 개정 건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설경진 기자 skj78@

〈현대그룹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현정은 vs 신들러 손배訴’ 장기화

작년 12월 조정 결렬後 ‘무소식’ 지난달 재판부 변경으로 재심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신들러가 벌이는 민사 소송이 재판부 변경으로 결론 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들러가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은 처음 배당됐던 서울고법 민사10부가 아닌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남양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의 경영권

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를 우군으로 확보해 우호지분 매입의 대가로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 해당 계약으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700억 원이 넘는 거액 손실을 입었고, 평가손실은 429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대 주주인 신들러는 이 계약을 문제 삼아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주식매수 부담 등 경제적·법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파생상품 계약은 효과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며 현정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신들러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법적 다툼을 할

의로 매듭을 짓기 위해 3차례 조정을 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조정이 결렬됐다. 변론종결 후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조정 회부된 터라 조정이 결렬되자 곧 2심 선고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월 법관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3개월째 선고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민사10부가 폐부되면서 해당 사건이 민사14부로 배당된 것이다. 기존 재판부가 폐부되면서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민사14부가 기록을 처음부터 심리하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중요도가 높고 복잡한 사안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한솔 기자 charmy@

BRAVO My Life

정기구독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심장 바꾼 대형 SUV...중간급도 '근육질' 변신 대세 노리는 '틈새' 모델들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니치 SUV 전성시대

지난달 국내 완성차 메이커의 SUV 내수 판매는 4만2761대로 세단 판매량(4만1909대)을 추월했다. 월별 판매량으로 SUV가 세단을 넘어선 것은 2월이 처음.

범위를 확대해 보면 추세는 더 뚜렷해진다. 5년 전인 2014년 20만6753대였던 중형세단 수요는 지난해 16만5905대로 19.8%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형 SUV 판매는 12만5190대에서 20만 8587대로 무려 15.3%나 늘었다.

이렇듯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여전히 SUV다. 미국과 중국에서 시작한 SUV와 픽업트럭 인기는 전 세계로 퍼졌다.

다만 최근 성장세는 주춤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어 이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SUV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브랜드별 출시 모델은 더 다양해졌다. 이전에 없는 수요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대중소 등급은 더 세분화했다.

국산차 시장에서는 한때 주춤했던 대형 SUV가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소형 SUV(C세그먼트) 아랫급으로 B세그먼트(현대차 코나, 기아차 스톤, 쌍용차 티블리 등) 경쟁도 치열해졌다.

르노삼성 QM6는 'SUV=디젤'의 등식을 보기 좋게 깨트린 대표 모델이다. 직렬 4기통 2.0 가솔린 GDe 엔진을 얹고 무단변속기 CVT를 맞물렸다. 가솔린의 정숙성과 CVT를 바탕으로 연비까지 모두 잡아낸 경우다.

덩치 큰 SUV에 가솔린 엔진을 얹었지만 1리터당 복합 연비 11.7km를 기록한다. QM6 판매의 70% 이상을 가솔린이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다.

정부의 LPG 연료 사용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르노삼성은 발 빠르게 QM6 LPG모델을 올여름 선보일 계획이다. 디젤 SUV가 널린 시장에서 LPG SUV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내수판매 부진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다.

수입차 시장에서는 볼보가 틈새 SUV시장을 노리고 있다. 볼보는 세단과 SUV의 장점을 버무린 신형 '크로스컨트리 V60'을 아시아 최초로 출시했다. 새 모델은 1997년 1세대가 첫선을 보였고 올해 2세대로 거듭났다.

왜건 만들기가 경지에 다다른 볼보가 이를 바탕으로 SUV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다. 이른바 북유럽의 고급미가 가득한 스웨덴 고유의 '스칸디나비아 럭셔리'를 표방한다.

안듯 키가 큰 왜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SUV 강점을 더 많이 지녔다. 2.0 터보 엔진을 얹고 8단 자

글로벌 SUV 시장 성장 주축하자 가솔린 엔진 얹은 르노삼성 QM6 LPG로 발 넓히며 내수부진 타개 불보 '왜건+SUV' 럭셔리 모델 경차급 SUV 내년 순차 출시 예정

동변속기를 맞물려 최고출력 254마력을 낸다. 스웨덴 '할렉스'의 5세대 상시 사륜구동(AWD) 기술을 기본으로 갖추고 T5 AWD 기본 트림이 5280만원, T5 AWD 프로 트림이 5890만 원에 팔린다.

이 밖에 초소형 틈새 SUV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본격화한다. 현재 B세그먼트보다 더 아랫급으로 다양한 경차급 SUV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 SUV보다 2개 이상의 콘셉트를 하나의 차에 묶어낸 CUV 형태다. 이미 쉐보레 스파크는 '액티브'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형 모델을 선보였다. 기아차 모닝 역시 SUV와 사륜구동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X-라인이라는 이름으로 CUV를 선보인 바 있다. 이들 모두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대세를 노리는 전략형 SUV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기아 피칸토 X라인



르노삼성 QM6



볼보 V60

타보니



'감성품질' 구현한 유러피언 SUV

쌍용차 신형 코란도

유럽형 '랩 어라운드' 스타일 적용 레벨 2.5 자율주행 시스템도 명물

쌍용차 신형 코란도 꽤 잘 생겼다. 날카로운 눈매는 티블리를 닮았으며 한결 고급스럽다. 한 걸음 물러나면 디자이너가 수백 번 고민 끝에 그려낸 양옆 캐릭터 라인도 오롯이 드러난다.

묵직한 도어를 열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쌍용차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도어트림에서 시작한 캐릭터 라인은 대시보드를 가로질러 반대편 도어까지 이어진다. 유럽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랩 어라운드' 스타일이다. 독일 특히 폭스바겐이 이룬 디자인을 자주 쓴다.

계기판과 센터페시아를 포함한 전면 패널은 이른바 '피아노 블랙'으로 불리는 '하이그로시'다. 이 정도 크기면 흔히 중간중간에 '싱크마크(sink mark)'라고 불리는 불량이 드러나기 마련. 그러나 신형 코란도는 이를 철옹성처럼 막아냈다. 실내 버튼과 다이얼의 작

동감도 2000년대 렉서스 수준으로 진보했다. 이제 쌍용차도 감성 품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다.

시동버튼은 센터페시아 아래, 기어박스 옆쪽에 달렸다. 프랑스 르노가 자주 쓰는 방식이다. 직렬 4기통 1.6리터 디젤 엔진에 숨을 불어넣으면 낮게 깔린 엔진음이 바닥으로 퍼진다. 최고출력은 같은 엔진을 얹은 티블리보다 10마력을 더 뽑아내 136마력을 낸다.

여기에 맞물린 6단 변속기는 초기 가속력에 중점을 둔다. 가속페달의 감각이 예민한 편인데,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도 스트레스가 없다.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명물이다. 차선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라인을 잡고 달리는데, 정중앙을 고집하는 것보다 한결 안도감이 있다.

현대차는 거대 중국시장을 겨냥해 차를 개발한다. 어쩔 수 없이 중국차를 닮아갈 수밖에 없지만 수출 물량의 절반은 유럽으로 간다. 새 코란도의 탄탄한 서스펜션과 높은 감성 품질이 유러피언 SUV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것도 이런 이유다. 김준형 기자 junior@



'굿 대디'를 매료시킨 패밀리카

혼다 '뉴 파일럿'

고속에도 조용...세단 같은 편안함 최고출력 284마력 산길서도 묵직

올해 자동차 시장의 키워드는 '대형 SUV'다. 도심과 자연이라는 상이한 공간에서 차를 통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대형 SUV를 찾는다.

혼다 대형 SUV '뉴 파일럿' 역시 이 경쟁 무대에 뛰어들었다. 파일럿은 최근 북미에서 연간 10만대 이상 판매된 혼다의 베스트셀링 대형 SUV다.

혼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굿 대디'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대형 SUV의 웅장함이 느껴지는 외관은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요즘 인기 많은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갖가지 옵션들은 뉴 파일럿에서 영감을 얻었다. 마이크로 뒷자리 승객과 대화하는 '후석 대화모드'가 대표적이다. 버튼을 눌러 변속기를 바꾸는 바아-와이어 방식도 뉴 파일럿에 이미 달려 있다.

패밀리카의 기본 조건은 충분한 적재 공간이다. 뉴 파일럿은 2열과 3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2376ℓ의 공간을 확보한다. 3열 시트를 접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 남자 3명의 1박 2일 캠핑 준비물(먹거리와 개인 짐)을 여유롭게 실을 수 있다.

주행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정숙성이다. 비가 오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동승자들과의 대화는 끊이지 않는다. 한적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 느껴질 뿐이다. 어느 상황에서도 세단을 탄 듯한 편안함에도 놀란다.

뉴 파일럿에는 '힘'이라는 반전이 있다. 경사 급한 산길을 오르내리면서도, 힘 부족을 못 느낀다. V6 3.5ℓ 직분사 i-VTEC 엔진은 넉넉한 최고 출력 284마력을 낸다. 도심과 고속도로, 국도 주행 이후 계기판을 살펴보니, 복합연비는 1리터당 7.8km를 기록한다. 배기량과 차 덩치를 감안하면 수준급이다. 뉴 파일럿은 부드럽고 강하다. '오빠 차'가 아닌 뚜렷한 '아빠 차' 분위기도 오롯이 담겨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사법불신 치료, 檢이 칼던 자리 변협은 소독약 역할”



이 찬 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 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공식 취임한 뒤 한 달여간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대의원 총회에서 함께 회무를 이끌어갈 집행부를 꾸린 뒤 “하나의 변협”을 기치로 내세우고 회원들을 만나고 있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절박함 알고 있다” = 이투데이와 만난 이 회장은 집행부에 대해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기수, 경력, 나이의 분들을 모았다”며 “이런 분이 여기에 와서 집행부가 구성됐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임기 동안 대한변협 회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회장이 내보인 자신감의 배경에는 이번 선거가 단독 선거로 치러졌다는 데 있다. 이 회장은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혼자 출마해 9322표로 전체 회원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투표에 참여한 회원 기준으로는 79%가 넘는 찬성표를 얻었다.

이 회장은 “지난 선거들은 경선 구도로 치러지면서 이념, 지역, 중·대형 로펌, 사시와 로스쿨 등 프레임이 짜이고 대결 구도를 이뤘다”며 “선거가 끝나면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그런 양상이 아니었다”며 “역사상 가장 많은 투표율, 투표수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회원들이 뭉쳐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대한변협의 75%가량을 차지하는 서울 회원뿐만 아니라 지방 회원들도 하나로 모아 균형 발전을 이뤄갈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서울은 20%도 채 되지 못하고 지방은 회원이 8명뿐인 지회의 투표소까지 다 돌았다”며 “대한변협이 서울과 지방을 모두 배려하고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서울에서 6100여 표의 지지를 얻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사법농단 관련 사법부 불신 커져 법원 신뢰 회복에 힘 보탬 것

로스쿨로 변호사 수 늘고 세분화 법무·세무·노무·변리사 등 법률 유사직역 변호사에 맡겨야

전문성·합리적 보수 경쟁구도로 국민들 법률 수요 충족에 만전



“서울에서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은 지난 2년간의 열정과 헌신을 평가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제도 도입은 당연히 필요... ‘소통’으로 이끌어 갈 것” = 일각에서는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탄핵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제도 도입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회장은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당연히 협회장이 잘못하면 탄핵해야 한다”며 “협회장 탄핵이 없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신 형평성 있게 원칙대로 협회장뿐만 아니라 총회 의장, 감사, 대의원, 집행부 임원 등을 모두 탄핵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임을 물을 방법,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회장은 “소통하겠다”며 “앞으



이찬희 회장은 서울 용문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변협 재무이사·인권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달 제50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로 어떤 분이든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경청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은 직역수호가 먼저 이뤄져야” = 이 회장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직역수호’에 대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는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이 아닌 다수의 법조인을 배출해 국민에게 법률 수요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법

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전에 변호사 숫자는 적고 법률 업무 시장에서 다루야 할 일은 많다 보니 소장 작성은 법무사, 세무는 세무사, 노동 사건은 노무사, 특허사건은 변리사 등 유사직역이 생겼다”며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변리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 시험을 폐지하고 신규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업무를 하던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규 유입은 막되 기존 유사직역 종사자와 변호사는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합리적 보수, 이 두 가지로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도 국가가 인정한 교육을 받고 검증 절차를 거친 전문가들에 의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려는 유사직역 업계의 행보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회장은 “법률 업무라는 것은 국민의 신체, 재산, 가족관계 형성 등 기본권을 다루는 것”이라며 “그것을 하고 싶을 때 국가에서 정한 방법을 로스쿨 가서 교육받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직역수호와 시장 확대가 선제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묶어 둔 상태에서 변호사만 계속 늘리는 것은 시장 과열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시장이 과열되면 그만큼 폐해가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사법 정상화, 변호사들 힘 보탬 것” =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변협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변호사도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크게 불신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칼을 닦았다”며 “변협은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가 건강해지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필요하고, 변호사 업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의 자정과 자기 개혁의 노력을 지켜볼 생각이 다”라고 정리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사진/고이관 기자 photoeran@

동네 편의점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녕?**

“우리동네를 지키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이 되어주세요”

가벼운 인사처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동학대예방
아동이 행복한 우리동네, 주위를 살피는 당신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Good Neighbor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분, GWI 발표기준)

‘사찰음식 명장’에서 ‘한식 앰배서더’로

한식진흥원 이사장 취임 한 돌 맞는 선재 스님

한돈자조금위 행사 제안 “훌륭한 재료...스토리로 풀어내자” 와인 8가지 맛 난다고? 된장·고추장 발효음식 세계화 가능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한 직원이 한돈자조금위원회에서 같이 행사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한식에서 돼지고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안 합니까. 사계절이 뚜렷해 비타민D가 많은 한돈에 된장, 생강을 넣고 만들면 기름도 제거돼요. 한식 진흥원에서 훌륭한 스토리로 풀어내면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4월 한식진흥원 이사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선재(64·사진) 스님은 최근 이투데이와 만나 이런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선재 이사장의 흔쾌한 허락에 한식진흥원은 지난해 5월 한돈자조금위원회와 홍콩 식품산업 종사자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돈 쿠킹클래스’를 진행해 한돈의 수출 활성화 전략에 일조했다.

‘사찰 음식의 명장’으로 이름난 선재 스님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

흥원 제5대 이사장에 오르자 ‘한식이 사찰 음식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안팎에서 나왔다. 이 에피소드도 세간의 말들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사찰에서는 ‘오신채’, 즉 마늘, 파 등과 육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식재료를 빼고 한식을 논하기는 어렵다. 이에 선재 이사장은 속 시원하게 말했다. “나는 오신채를 안 먹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안 먹는 것일 뿐이다. 한식진흥원 이사장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절에서도 많이 아플 때 등 음식을 필요로 하면 먹는다”며 웃어 보였다.

친할머니가 수랏간 궁녀였다는 선재 이사장은 궁중, 제사, 사찰음식 등 다양한 범주를 모두 한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할랄은 종교 음식이라는 선입견으로 보지 않는 반면, 우리 전통을 지닌 사찰 음식은



한식과는 별개로, 이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한국 식재료와 유래, 영양성분과 음식 조합을 즐겼던 선재 이사장은 한식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한식 앰배서더’다. 그가 스토리로 풀어내는 한식이

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라도 쉽고 친숙하게 한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선재 이사장은 “스웨덴 대사가 스웨덴만의 커피 타임인 ‘피카’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 문화’의 한국이 주52시간 근무를 도입한 점에 깜짝 놀랐더라. 이에 저 또한 ‘당신과 내가 통역이 필요하듯 5000년 역사의 한국에서는 자연의 생명이 요리에 들어왔을 때 중간 통역처럼 발효라는 것을 거친다’라며 느낌의 미학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대사는 스웨덴에서도 한국의 발효 음식을 연구해 보라며 수십 명을 내게 보냈다”고 그는 덧붙였다.

선재 이사장은 한식 세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가 먼저 우리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는 “와인을 입안에 굴리면 8가지 맛이 난다고 프랑스인들은 자부한다. 한국의 된장, 고추장 등 발효 음식도 그렇다. 3년, 10년을 발효한 간장도 담금 겁을 흔들면 제각각 다른 까만색이 묻어 나온다. 한식에 대한 긍지를 갖고 5000년의 지혜를 전파해 퓨전의 묘미를 선보이자”고 강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무역보험공사 부사장에 이도열

이도열(55) 한국무역보험공사 혁신경영본부장이 18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부사장은 무역에서 투자금융본부장과 리스크채권본부장, 총무부장 등을 지낸 경영관리 전문가다. 내부에선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과 소통으로 신입이 두렵다’는 평을 받는다. 이 부사장은 승진 후에도 혁신경영본부를 맡아 경영 전략과 조직 업무 등을 총괄한다.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대한제당 신임대표에 양청완

대한제당이 대표이사 사장에 양청완 사업총괄부사장을 15일자로 승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양대표이사는 1958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대한제당에 입사한 이후 해외사업BU와 바이오BU 담당 상무를 거쳐 제당BU와 관리 담당 전무, 사업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GS리테일, 임시정부 100돌 맞아

독립운동 역사 해외 탐방 캠페인

고객 100명 2박3일 상하이 견학

GS리테일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00명의 고객과 함께 2박 3일간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 발자취를 따라가는 독립운동 역사 해외 탐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GS리테일은 내달 15일까지 SNS를 통해 고객 참여형 콘텐츠 제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직접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테마로 한 콘텐츠를 자유 형식으로 제작한 후 GS25와 GS스퍼마켓, GS프레시의 전 SNS 채널에 게시하고 해시태그(#우리가나라를사랑하는방법, #GS리테일)를 남기면 된다.

고객 참여형 콘텐츠는 동영상, 정지영상, 텍스트 등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캠페인 기간 종료 후 GS리테일 임직원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 50개가 선발된다. 우수작에는 동반인 1인을 포함한 2인이 상하이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역사 해외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외 탐방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상하이 임시정부, 훙커우공원, 백범 김구 선생의 피난처였던 항주 독립운동사적지 등을 둘러보며 독립운동을 위해 애썼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남주현 기자 jooh@

공학한림원 대상에 ‘시스템대사공학’ 이상엽 KAIST 특훈교수

젊은공학인상은 김종희 POSCO 수석연구원·채찬병 연세대 교수

한국공학한림원은 제23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수상자에 이상엽(왼쪽 사진부터) KAIST 특훈교수, 젊은공학인상 수상자에 김종희 POSCO 수석연구원과 채찬병 연세대 언더우드특훈교수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을 받는 이상엽 교수는 시스템 대사공학을 창시해 석유화학산업을 지속가능한 생물화학산업으로 전환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그는 또 시스템대사공학을 이용해 다수의 세포공장과 생물화학 공정들을 개발, 생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젊은공학인상 수상자인 김종희 POSCO 수석연구원은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용 스테인리스강(Poss470FC) 및 핵심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서며 친환경 자동차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찬병 연세대 언더우드특훈교수는 5G·6G 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원천기술(양방향통신 전이중 기술, 밀리미터파, 햅틱 전송 기술 등)을 개발, 국내 기업에 이전에 비해 조기 상용화와 시



장 선도에 기여하고, 분자통신시스템 원천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억 원, 젊은공학인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0만 원이 수여된다. 상금 2억 원은 매년 귀뚜라미문화재단(최진민 TBC 회장)이 출연한다. 시상식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7회째 맞는 ‘한화클래식’... 올해 주인공은 ‘조르디 사발’

한화그룹이 주최하는 클래식 공연 브랜드 ‘한화클래식 2019’의 무대가 6월 22일, 23일,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한화클래식은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대가들의 무대를 소개해 왔다. 올해는 50년의 연구와 탐구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음악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인물, ‘조르디 사발’을 초청한다.

오늘날 가장 재능이 많은 음악인 중 하

나로 평가받는 조르디 사발의 음악적 특징은 특정 지역의 고음악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여러 나라의 민속음악을 아우르며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3일, 25일 공연에서는 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성악’ 위주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페르골레지의, 헨델의 등을 ‘르 콩세르 데 나시옹’의 연주, ‘라 카펠라 레알 데 카탈루냐’ 합창단과 함께 공연한다.

‘한화클래식 2019’는 20일부터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 티켓 가격은 예년과 동일



하게 서울과 대전 모두 R석 5만 원, S석 3만 5000원, A석 2만 원이다. 한화클래식을 사랑하는 관객들을 위한 프로모션과 공연 후기 이벤트는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정충기 한국지반공학회장 취임

한국지반공학회는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15일 제18대 학회장에 취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2년.

정 신임 학회장은 “여성 지반인 확대와 외국인의 활동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데 학회가 엔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반공학회는 지반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지진·산사태·도로 함몰(싱크홀) 등 지반 재해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회다.



프로당구협회 초대 총재 김영수

김영수(77)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프로당구협회(PBA) 초대 총재에 내정됐다.

PBA는 6월 프로당구투어 개막전을 앞두고 초대 총재에 김 장관을 내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총재 내정자는 프로농구(KBL) 총재,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등 문화체육 분야의 여러 단체를 이끌어왔다.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성장동력기획과장 권기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 박정웅 △대리점거래과장 한용호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원장급 보임 △부원장 박정원 ◇본부장급 보임 △BK 전략본부장 강준구 △환경기술본부장 고영환 감사부장 김선호 ◇본부장급 전보 △경영지원본부장 전창철 ◇실장·센터장급 보임 △항공국방신뢰성센터장 유상우 △환경기기센터장 김수진 △고객지원총괄센터장 이보영 △재료기술센터장 신현규 △

신뢰성평가센터장 김병로 △산업융합기술센터장 김성민 △디지털사업개발센터장 김진용 △방폭기술센터장 민영승 △수질교통환경센터장 김광구 △환경설비센터장 박인출 △환경평가센터장 홍길환 △기계역학표준센터장 문재택 △전기전자표준센터장 이시우 △공업물리표준센터장 유동훈 △프로세스정보실장 박세훈 △우주부품기술센터장 김경희 △철도부품평가센터장 박진규 ◇실·센터장급 전보 △정책기획실장 송현규 △서울분원경영지원실장 김기석 △경기분원경영지원실장 이정태 △기계소재기술센터장 송준광 △산업기술표준센터장 김기만 △창원기업지원센터장 최문석 △사업전략센터장 김태영 △글로벌마케팅센터장 이기석 △인증관리센터장 윤종학 △소프트웨어평가센터장 조원준

△의료기기심사센터장 박호준 △환경사업개발센터장 전운우 △표준사업개발센터장 송상훈 △복합형상표준센터장 유숙철 ◇팀장급 보임 △품질경영팀장 박재준 △서울고객지원팀장 이용득 △경기고객지원팀장 이영숙

◆강원도개발공사 ◇단장급 보직 임명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차장급 전보·승진·보직 임명 △공공사업팀 강원도농업기술원 건설사업소장 기백성 △주택사업팀장 김경운 △사업개발팀장 박영규 △올림픽시설팀 과장 박우성 △공공사업팀장·삼척복합체육공원 건설사업소장 겸임 신상철 △재무관리팀 과장 안영순 △올림픽시설 팀장 이용배 △알펜시아 에너지환경팀장 이철재

◆씨네21 △전략기획실 본부장 박건태

부음

▲윤금중 씨 별세, 송원영(전 국회의원) 씨 부인상, 송리·유라·애라·순빈·순진·당선 씨 모친상, 박종흠(조각가)·김재덕·이석화·조슈아 다니스(재미) 씨 장모상 = 1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0일 오전 11시, 02-2258-5953

▲정필모(전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 중앙대 부총장) 씨 별세, 정진현(연세대약대 교수, 대한약학회 사무총장)·호철(이화여대 약대 교수)·혜진(약사) 씨 부친상, 오정희(기분좋은약국 대표약사)·윤정원(가주한국문화재단 실장)씨 시부상, 정세원(코벨소이비인후과 의사)·준영(버클리대학생)·원영(서울대기계항공공학부 학생) 씨 조부상, 나민석(KAIST 박

사 과장) 씨 처조부상 =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특1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2-2227-7550

▲전영훈 씨 별세, 김동철(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 씨 장인상 = 18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 발인 20일 오전, 031-787-1500

▲모기남 씨 별세, 김희문(한국증권금융 신탁부문장) 씨 모친상 = 17일 오후 3시, 오산장례문화원 201호 특실, 발인 19일 6시 30분, 031-375-1100

▲최기생 씨 별세, 최봉수(피버트엔프 엔씨 사장)·은수(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희·성희·은진 씨 부친상, 우희승(팔고당 이사) 씨 장인상 = 17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031-787-1500

정일환의 Aim High



사회경제부장

어디에 집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미개한 공금증에도 최 후보자는 관계부처 장관으로 손색없는 직관적이고 시원한 해답을 제시했다. 딸 부부는 경기도 분당에 머물도록 하고, 부인 이름으로는 서울 송파에 집을 사고, 본인 명의로는 세종시에 분양을 받음으로써 천하를 삼남지방 북쪽 중심의 셋으로 나누어 서로 떠받치면 자손만대 번성하리라는 비급을 공개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격시비를 거는 어리석은 적폐들은 자폭하라.

최 후보자는 장관 정식 취임도 하기 전에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여러 공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준 진정한 공직자다. 부자들만 만날 수 있는 PB(프라이빗 बैं킹)나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레전드급 비책을, 그것도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기 쉽게 만천하에 알렸으니 부동산 문맹퇴치 공로가 한글 창제에 미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첫손에 집을 공으로는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할 것이라는 어린 백성들의 헛된 기대에 일침을 가하는 과단성을 들 수 있다. 집 없는 자들은 보유세를 올리고 공사가격까지 인상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건디지 못해 집을 팔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집값이 폭락하는 시나리오를 꿈꿨을 것이다. 허나 최 후보자는 보유 아니면 매각이라는 이분법은 개폐지에 게나 어울리는 단세포적 사고임을 일깨웠

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맞아가며 집을 갖고 있거나 매매 차익의 최고 68%까지 부과되는 양도세를 내는 대신 증여라는 제3의 해법을 택하는 코퍼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보였다.

두 번째 공으로는, 없는 자들이 그저 공금했을 따름인 부자들의 묘수를 밝고도 밝고 희고도 희게 내보인 소통을 말할 수 있다.

집 물려주기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투기세력'으로 규정된 다주택자들이 남몰래 마련한 뒷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만9312건이던 증여 건수는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후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다. 특히 서울(2만4765건·22.1%)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2017년까지 전체 증여 건수 가운데 서울 비중은 16%대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만 전국 주택 증여 건수가 9994건(서울 2457건)으로 1만 건에 가까워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증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전망이다.

행어나 눈에 땀이 맺히 행하는 일이 다 보니 PB센터 문턱에도 못 가 본 서민들은 비법을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집을 갖게 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교본을 남겨 많은 이에게 지식을 베풀었다.

우선 그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증여한 뒤 집주인이 된 딸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까지 2년 계약으로, 피붙이와의 거래에서조차 그는 원리원칙을 잊지 않았다. 딸 부부는 이 돈으로 증여세를 한 푼도 빼먹지 않고 납부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자녀답게 바르고 곧게 몸을 거둘 것임에 틀림없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검소와 청렴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아파트를 나눠 증여하지 않았다면 서울이 최고 30%까지 치솟을 수 있었지만, 최 후보자는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5000만 원을 아끼는 근검절약의 모범사례를 남겼다.

어디에 집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미개한 공금증에도 최 후보자는 관계부처 장관으로 손색없는 직관적이고 시원한 해답을 제시했다. 딸 부부는 경기도 분당에 머물도록 하고, 부인 이름으로는 서울 송파에 집을 사고, 본인 명의로는 세종시에 분양을 받음으로써 천하를 삼남지방 북쪽 중심의 셋으로 나누어 서로 떠받치면 자손만대 번성하리라는 비급을 공개했다.

이런 대도 그가 끝내 국토부 장관감이 아니라 우긴다면 대안으로 여성가족부 수장에 천거해 볼 인제라 할 만하다. 최 후보자는 집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대신 자식에게 증여함으로써 가족사랑을 실천했다. 더구나 백년손님인 사위에게도 그 몫을 똑같이 나누었으니 최 후보자의 너그러운과 큰 뜻은 끝을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재산 분할에 남자가 따로 없으며 사위도 가족임을 행동으로 앞장서 보였으니 최 후보자야말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가족체 위기를 수습할 적임자가 아닌가.

whan@



이종호 칼럼

한국과학저술인협회장

영화 '슈퍼맨'에서 슈퍼맨(크리스토퍼 리브)이 석탄을 한 움큼 손에 쥐고 짹 짹 잠시 후에 호두만 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영롱한 빛을 발한다. 이 장면은 다이아몬드의 특성은 물론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려면 잘 연마해야 하지만 슈퍼맨이 그런 능력을 손안에 갖고 있다고 설정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슈퍼맨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슈퍼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가?

보석의 정수로 불리는 다이아몬드, 아름다운 광채를 발하는 이 보석은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 다이아몬드(Diamond)라는 말은 그리스어 아다마스(Adamas)에서 유래했다. 이는 A와 Damas의 합성어로 A는 부정을 의미하고 Damas는 정복을 의미해, 다이아몬드는 '정복할 수 없는 것'이란 뜻이다.

DMZ에서 다이아몬드 캔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지하 100마일에서 300마일 사이에 있는 맨틀이라는 암석층에 있는 탄소 퇴적물이 수백만 년 동안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 다이아몬드로 변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더구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는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값이 싼 탄소의 순수한 결정체라는 점이다. 석탄이나 연필의 흑연 등이 모두 탄소이다.

근래 학자들은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추정이 나오게 된 것은 지구과학 분야에서 1960년대부터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판구조론(Plate tectonics) 때문이다. 대륙이동설에 의하면 곤드와나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북중국판과 남중국판이 있는데 북중국판은 서쪽 귀퉁이에서 로라시아 대륙과 부딪치며 이때 북상하던 남중국판이 다가와 둘이 충돌한다.

두 개의 대륙이 충돌했다면 충돌부가 압축된다. 충돌한 두 대륙의 지각물질은 히

말라야와 같은 거대한 산이 형성되며 땅 아래로는 이보다 훨씬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이때 지각물질이 들어가는 깊이는 100킬로미터 이상의 맨틀 깊이 수준인데 이곳에서 다이아몬드나 코어사이트(coesite)와 같은 고밀도 광물과 에클로자이트(eclogite)라고 하는 암석 등 초고압 광물이 형성된다.

학자들이 한반도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국 대륙에서 다이아몬드가 출토되기 때문이다. 1989년 중국의 충돍대는 중국 중앙부에 동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중국 친링산맥-다비산 일대와 산둥반도의 수루 지역에서 놀라운 암석이 발견됐다. 지하 약 150km 이상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하는 다이아몬드와 코어사이트, 오피올라이트, 에클로자이트 등이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대륙충돌대는 동쪽으로 한반도의 임진강대까지 연장된다. 중국과 같은 대륙 충돌대라면 동일한 광석들이 발견되는 것

은 상식이라 볼 수 있다. 한반도 지역에서도 고압광물인 다이아몬드가 출토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상상의 일만은 아니다.

서울대학교 조문섭 교수도 다이아몬드 같은 초고압광물이 임진강대 여딘가에 부존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진강대가 군사분계선, 즉 DMZ라는 인공의 벽에 의해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흡하지만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로 이들 지역이 개발될 수 있다면 DMZ가 엄청난 부가가치의 현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런 희망을 엿보여 주는 증거도 있다. 국내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예가 있기 때문이다. 1935년 2월, 지질학자 박동길(朴東吉) 교수가 사금과 석류석을 감정하던 도중에 0.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다이아몬드가 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자 학자들 사이엔 진위 여부로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도 유명한데 현재 서울대학교 25-1동 3층 복도에 전시되어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리빙스턴 명언
"사람은 자기 일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를 횡단하고 토인(土人)을 사랑한 의인(義人)이다. 19세기 영국의 선교사·남아프리카 탐험가. 빅토리아 폭포와 잠베지 강을 발견했다. 켈리마네 주재 영국 영사로, 니아사 호 등을 탐험, '노예사냥' 실태를 폭로함으로써, 노예무역 금지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13~1873.

☆ 고사성어 / 일엽페목(一葉蔽目)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린다"라는 뜻으로, 자질구레하고 단편적인 현상에 가려 사물의 전모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갈관자(鵠冠子) 천척(天秩) 편에서 유래되었다. "무릇 귀는 듣는 것을 주관하고 눈은 보는 것을 주관한다. 그러나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리면 태산이 보이지 않고, 두 알의 콩이 귀를 막으면 우렛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夫耳之主聽, 目之主明, 一葉蔽目, 不見太山, 兩豆塞耳, 不聞雷霆]

☆ 시사상식 / 분수효과(fountain effect)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현상. 오히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면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증가되면 생산투자로 이어지므로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방귀
'기운을 놓는다'는 뜻의 한자어 방기(放氣)가 변한 말.

☆ 유머 / 천생 배필
결혼상담소에서 자기가 찾는 상대 여성 조건을 얘기했다. "간단합니다. 아름답고 밥을 잘할 것."

중매인이 컴퓨터에 입력하자 바로 답이 나왔다. '쿠쿠 압력밥솥.'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이달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출 부진에는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중(對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26.7%에 달한다. 이는 수출 점유율 2위인 미국(12.0%)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우리 수출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은 작년 11월(전년 대비 -3.2%)을 시작으로 12월(-14.0%), 올해 1월(-19.2%), 2월(-7.4%)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대중 수출 부진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 등으로 중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기저수집



서병근 정치경제부/sbg1219@

對中 수출 악화 개선하려면

주력품목인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문제는 올해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미·중 무역분쟁 영향 가시화로 인한

수출·생산 둔화 등을 반영해 종전 6.3%에서 6.2%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였다.

이대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세가 둔화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부진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정부가 목표로 정한 2년 연속 수출액 6000억 달러 달성도 어려

워질 수 있다.

대중 수출 부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 시장을 발굴한 것이 최선이다.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중국·미국 중심의 한국경제 지형을 아세안, 인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등으로 확대)을 중점 추진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에는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도 내놨다.

당장 이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을 대폭 끌어올리는 건 무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 지역의 수출 판로를 차근차근 넓혀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02)799-2669	편집인 김상철 (02)799-2621	논설실장 추창근 (02)799-2664	편집국장 김덕현 (02)799-2697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편집부 (02)799-2621	뉴스레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97	대표전화 (02)799-2600	대표전화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금융부 (02)799-2665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산업부 (02)799-2648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중기IT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47

K-팝 스타 일탈을 보는 일본의 시각

“빅뱅은 소멸하는가?” 일본에서 이런 뉴스가 인터넷 신문기사로 화제가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큰 뉴스가 되고 있는 빅뱅 승리의 성접대 알선 및 약물 거래 의혹을 비롯한 K-POP스타와 한류스타의 각종 스캔들은 일본에서 특히 팬들 사이에서 큰 고민거리가 되어 있다.

우선 빅뱅은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누려 온 그룹이다. 일본 팬들은 승리에 관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은퇴했지만 다시 복귀해 주었으면 한다” 등 비평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점은 비판적 목소리가 강한 한국이나 동남아 측 분위기와 다르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승리 등 K-POP 그룹 가수들의 스캔들은 험한시위의 절호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빅뱅 승리는 일본에서는 V.라는 예명으로 알려져 있다. 승리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일본 TV 토크쇼 프로그램에 몇 번 출연하기도 해 더욱 지명도가 높다. 일본 교도통신,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 주요 언론사들이 사실 보도 수준의 기사를 이미 몇 차례 내보냈다. 인터넷 매체에서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도 공개했으며 일본어로 번역되고 해설 기사도 나와 있다. 그리고 문제의 대화방에서 대화한 아이돌들의 대화 자체가 한국의 기사와 똑같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

더 나아가 승리가 클럽 버닝썬을 통해 해외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상대가 일본의 K건설회사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본 측 매체는 추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국민이 관련이 된다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빅뱅의 다음 콘서트는 승리까지 포함해서 전원이 제대하여 모일 수 있는 내년 하반기에 도쿄돔에서 계획되어 있지만 현재 그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빅뱅의 일본 측 소속 음반 회사는 '에이벡스'다. 에이벡스는 아직 이번 사건에 관해 빅뱅의 한국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세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빅뱅은 일본에서는 콘서트로 돈을 버는 그룹이다. 그런데 그 이익의 대부분을 한국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가져가므로 에이벡스의 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한다. 이런 수익구조도 빅뱅의 일본 내 운명에 영향을 준다. 사실 승리를 빼고 나머지 4명만으로도 콘서트를 할 수 있으나 그 문제는 수익구조에 달려 있는 듯하다. 에이벡스에는 현재 빅뱅의 동생밴드 iKON이나 걸그룹 블랙핑크도 소속해 있는데, 그들이 에이벡스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에이벡스는 빅뱅의 문제가 커진다면 빅뱅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측 음악 관계자들이 언급했다.

한편 승리 등과 카카오톡으로 음란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출두한 FT아일랜드의 최종훈이 17일 오전 21시간에 결전 조사를 마치고 귀국했다. 그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이미 14일

최종훈의 그룹 탈퇴와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다. 그런데 FT아일랜드는 올 4월 4일부터 일본에서 콘서트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이쪽은 최종훈을 제외한 4명으로 일본 콘서트 투어를 감행한다고 결정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일본에서 많은 활동을 해온 가수 정준영이 몰래 찍은 성 동영상을 승리 등과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사실과 그의 매춘 혐의, 게다가 그들을 경찰 간부가 봐주었다는 의혹 등은 일본에서도 이미 한류 팬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뉴스가 되었다. 일본 팬들은 계속 터지는 한류와 K-POP 관련 스캔들에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차태현 등의 원정 내기 골프 의혹 등도 이미 일본에서 한류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세히 보도된 상태다.

최근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도 한류와 K-POP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BTS의 원곡 T-셔츠 소동으로 그들의 일본 TV프로 출연이 보류가 되었지만, BTS의 일본 콘서트 투어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 그들의 일본 투어는 대성공이었다. 그것은 한일 양국 정부끼리 대립해도 두 나라의 시민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숙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K-POP과 한류스타들은 스스로의 윤리적 문제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악화된 한일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멸이라는 안타까운 형태로 무너져가는 이런 흐름을 멈출 수 없다면 한류와 K-POP 수익 전체의 80%라는 일본시장을 상당한 비율로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니 아이돌들의 윤리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사설

대기업 공간 쌓아놓고도 투자 못하는 이유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보유한 현금이 250조 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정보사이트인 제법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상장사 95곳의 2018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 기업의 연결기준 현금보유액은 248조 3830억 원이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 예치금 등을 포함한 것이다.

삼성그룹 계열사 현금보유액이 125조39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다. 다음으로 현대차 42조7980억 원, SK 28조5500억 원, LG 13조70억 원, 포스코 11조56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기업실적 또한 악화하는데 대기업 공간에 돈이 쌓일 뿐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한마디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기업들은 번 돈을 계속 확대재생산을 위해 투자해야 고용이 늘어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그럼으로써 국가 경제도 선순환된다. 이 같은 발전 경로가 끊기고 있는 것이다.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는데도 투자하지 않는 것은 경영 여건의 불안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교역은 위축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임금 상승과 노사 대립, 생산성 저하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규제임은 수도 없이 지적돼온 고질병이다.

재계도 신산업과 새로운 시장 창출

을 가로막는 규제의 혁파를 입이 아프도록 호소해왔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로 사업 기회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개혁이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음에도 개선된 게 없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특정 기업과 사업에 국한돼 실효성이 의문이다. 규제 샌드박스 무용론(無用論)도 나온다. 규제완화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글로벌 경쟁의 '시간싸움'을 벌여야 하는 신산업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부-여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대기업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혼드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대주주의결권을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폐지 등은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견권행사 지침) 강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도 없다. 그러니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 투기 자본들이 국내 대기업 경영권을 공격하고 터무니없는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에 쓸 돈과 시간을 경영권 방어에 쏟아야 하는 실정이다. 삼성전자만 해도 올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에 투입하는 돈이 20조 원 규모라고 한다. 대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걸 막고 있다.

조남호의 증구난방

자본시장1부 차장



한미약품 공시 논란 “또야~”

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일단 자진 취하하고 재신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FDA에 BLA 신청서를 제출하고 60일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간 내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자진 취하를 택했다는 것이다.

물론티스는 한미약품의 첫 번째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은 제품이다. 물론티스는 한미약품이 원료를 생산하고 이 원료를 이용한 완제는 스펙트럼으로부터 수탁받은 미국 내 의약품수탁생산(CMO) 업체가 만들고 있다. 이번 자진 취하가 없었다면 올해 상반기 내 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스펙트럼이 FDA와 협의를 통해 데이터를 보완, 2-3개월 뒤 BLA를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허가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내용만 놓고 보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일이라 치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약재성 공시가 나온 시간이 '때마침' 시간 외단일가거래가 끝나기 불과 3분 전인 오후 5시 57분이라는 점이다. 한미약품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견 올빼미 공시로 비칠 수 있다.

더군다나 한미약품의 공시 문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29일 오후 7시에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과 맺었던 8000억 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을 입수했으나 다음 날 주식 시장이 개장하고도 30분이 지나야 나왔다. 한미약품 주가가 전날 오후 나온 미국 제약사와의 1조 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재대로 급등하던 때였다. 약재 공시 이후 주가는 급락했고 투자자는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2월에도 글로벌 제약사 릴리에 기술 수출했던 면역 질환 치료제 임상 2상이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때마침' 설 연휴 전날 주식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였다.

과거 전적이 이렇다 보니 이번 공시를 바라보는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이 고울 수 없다. 신뢰 경영이라는 진정성조차 의심받을 수 있다. 파트너사와의 좀 더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은 물론 공시 관련 내부 프로세스의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spdran@



질곡(桎梏)

일본의 역사 왜곡과 억지 발언은 어제로 늘의 이야기 가 아니다. 경제대국을 자부하는 일본이지만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참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자신이 없고 뻔뻔하지 못하면 저렇게 기를 쓰며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대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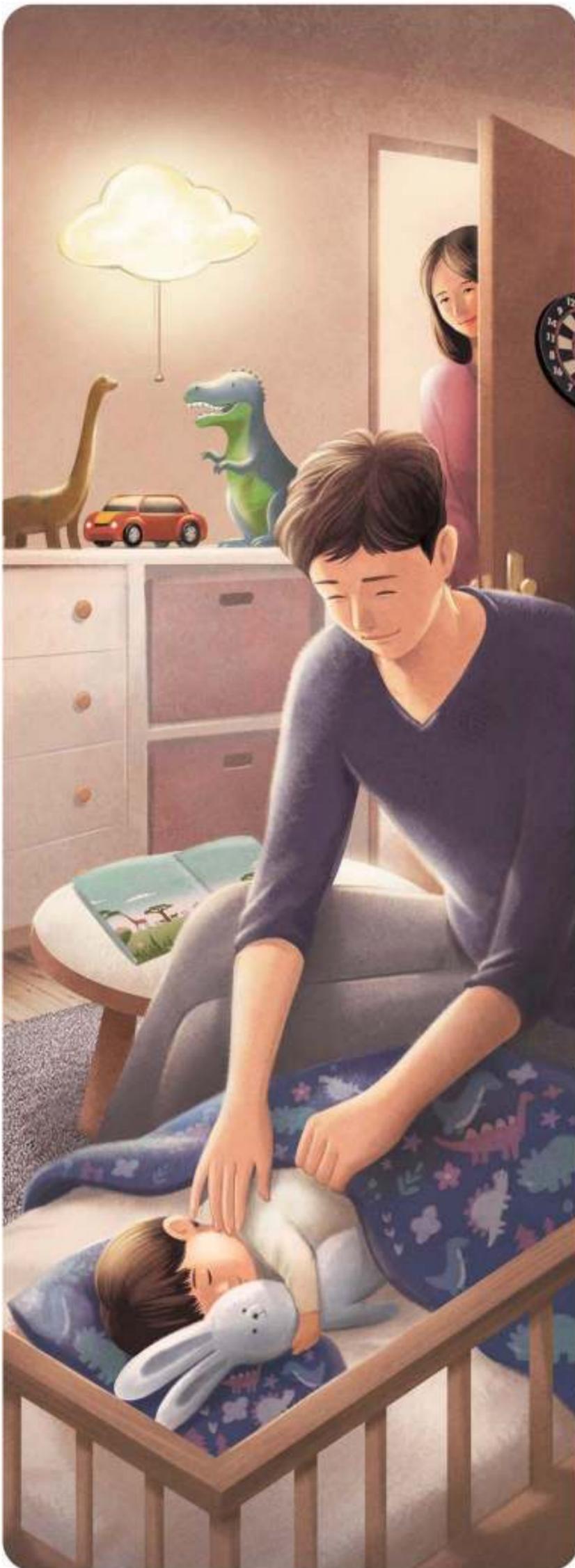
질곡은 桎梏이라고 쓰며 '차꼬질', '쇠고랑 곡'이라고 혼동한다. 차꼬는 발에 채우는 족쇄(足鎖, 鎖:자물쇠 쇠)이고, 쇠고랑은 손에 채우는 수갑(手匣, 匣:작은 상자 갑)이다. 이런 형벌기구인 질곡은 후에 말의 용도가 확대되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어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실패의 질곡이 있는가 하면 일본처럼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지금도 그들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의 과정에서 스스로 차게 된 족쇄와 수갑에 딱 묶인 채 불쌍한 변명과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비파자변, 하질곡자역변(荷蓍求魚, 荷:떨어뜨리다, 魚:물고기)"이라는 말이 있다. 荷: 떨 하, 桎梏: 비파(중국의 악기 이름), 桎:손뻐 칠 변. "비파를 맨 사람이 손뻐를 치니 형틀 맨 놈도 박수친다"는 뜻이다. 남은 진정으로 좋아서 손뻐를 치는데 수갑을 차고 족쇄를 찬 놈도 제 꼬락서니를 모르는 채 덩달아 손뻐를 친다는 뜻이다. 반성하지 않으므로써 죄를 떨쳐내지 못한 놈은 계속 질곡을 차고 있어야 한다. 일본, 국력이 세계 2-3위라며 잘사는 나라인 양 덩달아 박수를 치고 있지만 역사의 수갑과 차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여전히 전범자이고 죄인일 뿐이다.

2년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면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다. 탄핵을 받을 만큼 실정을 했는데 벌써 그 실정의 질곡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형량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하자고 하니 참 이해가 안 된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애착 인형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아이에게

꼭 껴안아도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인형을 안겨주세요

앞선 사람들은
이렇게,에어드레서를 씁니다



골드미러

삼성 에어드레서

| 옷을 넘어 라이프까지 바꾸는 진정한 의류 청정은 오직 에어드레서 뿐 |



미세먼지 필터

미세먼지 필터로 옷에서 떨어진
미세먼지를 빠르게 강력하게 잠금합니다.



냄새분해 필터

제품 내부에 남은 작은 냄새 입자까지
냄새분해 필터로 분해해서 없애줍니다.



제트스팀

각종 바이러스와 유해세균을 99.9% 살균하고,
생활주름까지 간편하게 관리합니다.



제트에어

강력한 제트에어가 인감 속 미세먼지까지
빠르게 털어냅니다.

* 99.9% 살균: 안티비전스 - 코리나 99.9% 제거, 안티노 바이러스 99.9% 제거, 헤르페스 바이러스 99.9% 제거 - 시험방법: 실온 건조에서 시험소용에 오염시킨 바이러스에 대한 제거율을 의미함 - 시험 소용: 2cm x 2cm의 면소용, 모직 소용, 10배정확도 약화방지 장입상 시험용 실용결과값 (예) 100%, 100배정확도 정확도 99.9% 제거, 대장균 99.9% 제거 - 시험 방법: 실온 건조에서 시험 소용에 주입된 세균에 대한 살균율을 의미함 - 세균 1개, 10cm x 10cm 면소용 시험소용 30개를 100%의 인양에 위치해 불부해해제 사정함 - 시험 대상군: 황색모노상구균, 대장균 - 국제인증기관 KIRA에 인증을 받은 저사살균 결과임 - 살균할 수 있으므로 살균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